

# 성도의 빛 7

“Sôngdo-wi Bôt”



# 성도의 벗

第3卷 第7號

순 서

1967年

|        |            |   |   |    |
|--------|------------|---|---|----|
| 卷頭言    | 裴          | 一 | 文 | 1  |
| 大管長 말씀 | 데이비드 오·맥케이 |   |   | 7  |
| 敎理問答   | 裴          | 一 | 文 | 10 |

● 特輯 ●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敎會의 韓國 宣敎史

|                       |                     |       |   |    |
|-----------------------|---------------------|-------|---|----|
| 釜山支部가 組織되기 까지         | 朴                   | 在     | 岩 | 11 |
| 北極東 宣敎部 韓國 地方部        | 鄭                   | 大     | 判 | 17 |
| 韓國 宣敎部 以後             | 韓                   | 仁     | 相 | 23 |
| 歷代 宣敎師 이름             |                     |       |   | 29 |
| 〈座談會〉 韓國 聖徒의  어제와  오늘 |                     |       |   | 36 |
| 〈特別畫報〉                | 에언된 그리스도 복음의 비교와 회복 |       |   | 31 |
| 支部消息                  |                     |       |   | 44 |
| 성도의 벗 퀴즈 (5)          | 편                   | 집     | 실 | 49 |
| 이것이 물몬이다              | 리차드                 | 엘·이만스 |   | 50 |
| 祖上을 찾는 우리의 信仰         | 張                   |       | 超 | 56 |
| 찬송가 소개                | 편                   | 집     | 실 | 58 |
| 역원을 찾아서               | 閔庚郁                 | 兄弟    | 篇 | 59 |
| 下月谷洞 88番地를 찾기까지       | 김동수                 | 박창욱   |   | 62 |

# 贖罪의 原理

裴 一 文



편집자 주 : 이 글은 1967년 6월 30일 東部支部 “成人의 밤”에서 “贖罪”라는 演題로 말씀하신 宣傳部長의 演說抄이다.

贖罪란 좀 特異한 말이어서 聖經엔 한번 밖에 언급 되어 있지 않으며 사도 바울도 로마 聖徒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을 썼지만, 그 때도 이 말은 잘못 사용 되었었다.

그러면 贖罪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贖罪의 原理란 무엇일까?

主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啓示 가운데 “敎理와 聖約”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 贖罪의 뜻을 가장 明確하게 說明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요 즐거운 소식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증하는 음성이니, 곧 예수는 세상에 오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도다. 또 아버지께서 자기 권능에 맡기사 지으신 모든 자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하셨느니라”(교성 76:40~42)고 하신 말씀이다.

이 句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본래의 상태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다시 말해서 속죄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대가 다시 결합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가끔 복음 연구자들이 속죄 (Atonement)란 영어 단어를 놓고 설명할 때 at, one, ment 라 써놓고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속죄란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몸소 행한 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란 원리를 놓고 생각할 때 그것을 원리로서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贖罪를 왜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속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속죄를 이해하는데 차

철을 가져올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회원 가 :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후, 전의 세상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그들이 보내는 유혹이 힘들었다.

그렇다. 세상의 유혹, 혼란, 죄, 병 들들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된다.

회원 나 : 대개의 경우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병이란 육체나 精神上的의 不完全 狀態를 뜻한다. 갓난 아이들이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는 가족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될 것이다. 팔, 다리가 혹은 신경계통의 한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등 온전치 못한 상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온전했던 부분도 세상에 태어난 후 조직의 일부가 마비되어 그 부분이 변해가는 것도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것과 함께 신체적인 것도 참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원 다 : 후세에 관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부터 왔는가엔 심각하지 않아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듯이 자기의 죽음을 염

려한다. 또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듯이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두려워들 한다. 本人은 道敎에 關해서 研究해 볼 機會가 있었는데, 그들은 神祕로운 藥을 먹고 永存할 수 있는가에 沉沒하는 것 같은 印象을 받았다.

釋迦는 죽은 사람을 보고 커다란 衝擊을 느꼈다. 10살이 넘도록 죽은 것을 보아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죽어가는, 나이많은, 죽음에 차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온 삶을 마쳐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느냐는 것에 關해서 생각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훌륭한 종교 중의 하나인 불교는, 이러한 죽음을 앞에 놓은, 精神的으로 衝擊을 받은 나이 어린 소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상 애기한 죄, 질병, 죽음을 人類가 當面한 가장 큰 問題로 놓고 애길해 보자.

우리는 왜 死亡이란 것을 생각해야만 되고, 죽음을 맞아야만 되는 이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와 질병과 사망이 어떻게 시작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즉 “인간 세상의 첫 빚은 아담과 이브이다”라는 얘기와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이다.

만일 예수교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했던 일을 이해치 못한다면 속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도, 또 속죄를 감사하지도 못할 것이다. 속죄란 아담과 이브가 행했던 일의 필



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예수는 아담과 이브로 인하여 무너진 법물을 완전히 수리키 위하여 온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불멸이었으며, 그들의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불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죄하고, 순결하고, 영원성을 지닌 존재였었다.

그러던 어떤날, 동산을 걷다가 주의 음성으로 계명 하나를 받았는데, 첫째는 “번성하라” 즉 “자녀를 가지란 것”이었으며, 둘째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는 것이었다. 먹어서 안되는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후, 무시파 즉, 사탄이라고 하는 善의 敵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사탄이란 것이 이브를 유혹해서 말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다.

善한 女人 이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듯이 유혹에 현혹되어 그것을 따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

이 따먹은 열매로 해서 자기의 양상과 조건이 달라진 이브는 “자기는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차차 선과 악 즉, 의로운 생활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갔다.

과일을 먹은 이브가 아담에게도 권고해서 과일을 먹게한 후, 그들은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며,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따 먹으면 선과 악을 가리게 되리라”고 했고, 죽지 않으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한편으론 진리를 얘기했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거짓을 얘기했던 것이며,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진실을 미끼로 해서 사탄은 사람을 거짓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다.

그후, 사탄의 선과 악을 區別할 수 있다는 얘기는 事實로 증명되었으나, 죽지 않으리라는 얘기는 죽음의 요소를 이미 먹은 후 이었으므로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이 얘기는 아버지로서의 혹은 남자로서의 아담이 “번성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인과 함께 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를 낳을 수 있지 혼자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善惡果를 먹은 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떠나게 된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사망의 상태였던 것이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육체의 사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은 인간의 당면 문제 중에서

죄와 질병과 사망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행한 행위의 결과이며 죄라고 까지 일컬어 지는 아담과 이브가 행한 일의 결과인 것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는 해결되었어도 이로 인해 세상의 환난 절고를 겪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사망에 애속되게 되었다. 즉 우리는 이브의 아픔을 이어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결과로서 죄, 질병, 사망의 어려움에 애속되었으며,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까닭에 하나님의 돌레에 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을 쫓겨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과 이브가 소리쳐 하나님을 부르나 떨어져 나간지라 보지를 못 했느니라” (모세서 5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슬픔과, 어려움과, 온갖 걱정이 뒤섞인 세상 살이의 상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命하시길 “주를 경배하라” 하셨고, 그들의 “가축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첫 소산을 번째, 지냄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얼마후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번째 지내느냐”고 했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 합니다만, 주께서 명하신지라 내가 행하고 있음

니다”라고 말했다. 이말을 들은 천사는 기뻐하며 “너희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온전한 자비와 公義로 가득하신 독생자의 형태와 비슷하니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예수께서 지상에 살게 될 때 까지,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피 흘린 높은 뜻에 참가하는 뜻으로 그의 뜻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짐승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번째 지내는 의식을 계속해서 지켜왔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이런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하나님의 영이 아담 위에 임하셔서 아담이 세상을 위하여 많은 애언을 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범법하였음을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녀를 가진 것을 기뻐하였다. 그는 “내가 다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였으며, 그의 아내가 그의 모든 소리를 듣고 역시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범법하지 않았으면 자녀를 갖지 못했을 것이며, 이 기쁨과, 영생이 있는 것 또한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아담은 이 세상에 죽음을 불러왔고 예수는 이 죽음을 극복할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아담이 죽음을 불러오므로 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과 죄, 고통을 맛보게 되나, 예

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를 극복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 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으며, 21 절에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한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죽음으로 부터 부활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한 사실과는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는것 처럼 男女老少, 信仰의 有無, 信仰의 狀態, 國籍에 關係없이 모두 復活한다. 不滅하고 復活한다는 것은 모든 人間을 ครอบคลุม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恩賜인지라 人間은 모두가 復活한다.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公義로우시다는 얘기는 아담으로 因하여 죽게된 人間에게, 무상으로 영생을 얻는 열쇠가 되는 復活과 不滅性을 주셨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다시 말하면 나와 無關한 아담으로 인해서 내게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는 것은 公義로운 처사가 아니므로, 公義로우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죄가 아닌 것으로 받는 벌이, 公평치 못함을 아는 것이

나 같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의 죄와는 無關하긴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엔 족하지 않다”고 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신 만큼의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에 합당한 선물을 주시던가, 특권을 주시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그 만큼의 벌을 받게 되고, 그 죄의 값인 영적인 사망이란 것은 아담의 예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의 시대가 아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태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이다.

人間은 모두가 불완전 해서 죄를 짓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다시는 인정 받지 못하는 상태이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마련되어야 했었으며, 하나님은 公義로우시고, 순결하시고, 義로우시고, 기록하셔서, 사람이 갖고 있는 義로서는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죽음이 왔으니 내가 그 죄를 대신 걸머지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



리에게 가르치신 속죄의 원리는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이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적인 사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죄값을 치뤄 주신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지은 죄에 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처사이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회개한 죄가에 따르는 처벌이나, 아픔, 고통같은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즉, 회개한 이후로는 그전의 것들이 우리 어깨에 걸머지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길은 가능하지만, 죄사함이라는 것은 회개 이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환언하면 용서를 빌고 못 받는 것은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란 얘기이다.

1830년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보라 인간들이 회개했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나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감당하노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고난 그대로를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며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자인 나일지라도 고통으로 인하여 떨었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았고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니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 하지 하였느니라”

(교성 19:16-18) 예수께서 갓세 마네 언덕에서 세상의 죄 값을 대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느냐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영혼이 혼미했으며,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기도로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워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아픔이 얼마나 심했던 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 기도했다.

피를 땀처럼 쏟았다고 했다. 죄값으로의 고통은 무섭다.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하지도 않다.

예수가 이뤄놓은 속죄에 대한 가능성을 명백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있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째 영의 아들임을 알며 그의 아버지는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꼭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의 존재였다는 것도 알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의 대속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안다.

에 언 자 말 씀

# 물 몬 의 개 척 자 들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20년 봄 요셉 스미스가 첫번 시험을 보았을 때 그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사회적인 훈련도 쌓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후 10년만에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으며, 체설혼 아홉이 다 되기도 전에 순교했습니다.

구세주나 사도들이 가르치신 바와 조화되는 그의 가르침이라던가 하나님을 대항함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의 타당성이라던가, 교회의 조직이 완전한 점에서, 또한 대 인류의 향상과 요구에 대응하는 교회의 운영과 절차와 그 밖의 많은 말일의 대업의 규모에 있어, 이상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해 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대하는 이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지혜를 깨닫고 가슴두근거림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옛 사람들이 종종 그랬듯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만일 “이 사람의 이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 13:54)고 물을진대 우리는 서슴치 않고 “요셉 스미스는 이를 높은 하늘에 계신 분에게서 받았다”라고 분명히 대답하겠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 당하고 난 뒤 근대의 모세라 일컬음을 받았던 브리감영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의 당시 당면한 긴급 과제는 성도들을 세 보급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전도 입증 하거니와 신앙이 없이는 하나

님을 기쁘게 헤드릴 수 없으며 (히브리서 11장 6절) 오직 이 신앙을 통하여 선지자나 옛 지도자들이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며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11장 33—34절) 하였습니다.

전혀 낮선 수평선을 바라보며 항해에 항해를 거듭하여 마침내 콜럼버스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케한 것도 신앙이었으며, 대륙의 운명을 짊어진 매이 홀라우어호를 미대륙에 도착하게한 것 또한 신앙이었고, 메마르고 황폐하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브리감영과 유타의 개척자들이 영원한 정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경주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보다도 더욱 중요하며 이치적인 판단이라던가 체험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약속의 땅에 접근하는 동안 때로는 수천의 무리가 험산의 외길에서 우거진 숲을 많이 헤치기도 하며 육중한 바위를 치위 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느린, 힘겨운 포장마차의 행렬은 역사의 계곡을 타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자들의 선발대가 큰 산정에 거의 접근하였을 때 처음으로 대호수의 첫 선을 보았고 그 호수의 서편으로 “미국의 사해”가 연결된 것을 보았으



며 그 배에 햇빛에 반짝이던 불 빛은 번영의 약속을 이야기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의 징조로 보였습니다.

당시 불모지요 전혀 아무런 소산도 거두지 못할 것같이 보이던 그 땅이 서부개척과 번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신앙의 역사 가운데 신앙이, 인간의 이지적인 판단 이라던가 인간의 체험적인 지식을 능가한다는 놀라운 본보기인 것입니다. 개척자들의 역사중에서도 브리감 영은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광야에서 정착지를 찾던 당시 개척선발대의 요원이었던 백 사십팔명의 잠자리와 급식문제가 모두 그에게 매달려 있었고 계절은 이미 늦어 농작물을 그곳에 심어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가망은 전혀 감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 사십 팔명 이외에도 예언자의 순교이래 새로운 지도자를 쫓아 정든 땅 나무를 버리고 새로운 안식처와 평화를 찾겠다는 희망을 안고 길을 떠난 자가 수천명이었으니, 미시시피강 서편 뚝으로부터 약 백 사십오 마일 떨어진 아이오와주 유니온읍 피스가 산에 약 이천여명이 있었으며 카운슬 블러프에서 동으로 백이십육 마일 떨어진 아이오와주 데카뷰어 군가든 그로브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으며, 오마하로부터 육마일 떨어진 미시시피 강변과 윈터 퀴터스 부근에는 다른 육천명이 운집해 있었으며 이미 만명은 대호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딛고 있었으니 생계의 가능성이란

더욱더 희박해지지 않았는가!

대 지도자 하나를 믿고 아직도 그 모습이 들어나지 않은 피난처를 향하여 진군하던 몰몬이 브릿티쉬 아이들과 이미그레이슨 계곡에 무려 사만이었다고 모두들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지적인 판단을 능가하며 사람의 체험적인 지식보다도 뛰어난 것은 이 대지도자의 하나님께로 향한 두터운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를 인도했던 신앙을 입증해 주는 말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솔트 레이크 계곡을 바라보았을 때 빛의 영이 내게 임하여 계곡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았고 그 때 나는 이곳에서 성도들이 안전과 보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높은 경지에 이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의 확신 곧 현재의 모든 불협화음을 가능한 미래의 조화로 바꿀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오래 살아 멸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굶핍 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과 영웅적인 정신은 이미 오랜 세월을 두고 선구자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비할바 없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는 자들에게 빛의 용기를 더하여 또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자리를 잡고 번영하게 된 수백의 크고 작은 무리들이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개척자로서의 탁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계속)

# 교리문답

해답자 裴一文

질문: 「신권」과 「신권의 열쇠」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제 5대 대관장이셨던 요셉 에프 스미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의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신권의 어느 직에 성임된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능으로 수행되는 모든 행동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일을 지시하는 능력을 신권의 열쇠라고 합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 열쇠는 교회의 대관장이시며 예언자 한분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분은 이 능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의 위임받은 사람도 역시 자기가 위임받은 특별한 일에 대한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1829년 6월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왕국의 일쇠를 받았읍니다. 이것은 역대 대관장님을 통하여 전해 내려왔으며 현재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대관장은 세계 전역의 신전·관리회장, 선교부장, 스테이크부장을 임명하십니다.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은 자기의 교회행정 에 속한 제반문제를 처리할 열쇠와 권능을 허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부의 모든 문제를 지시할 열쇠를 가진 선교부장은 수시로 보좌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행할 권능을 주게 됩니다. 그는 또한 지방부장에게 신권의 열쇠를 부여하며, 이러한 열쇠를 부여받은 지방부장은 선교부장의 지시와 충고에 따라 지방부를 바로 다스릴 성스러운 권능을 갖게 됩니다.

교회 내의 12세 이상된 합당한 남자

(31페이지에 계속)

# 釜山支部가 組織되기 까지

特  
輯

박  
재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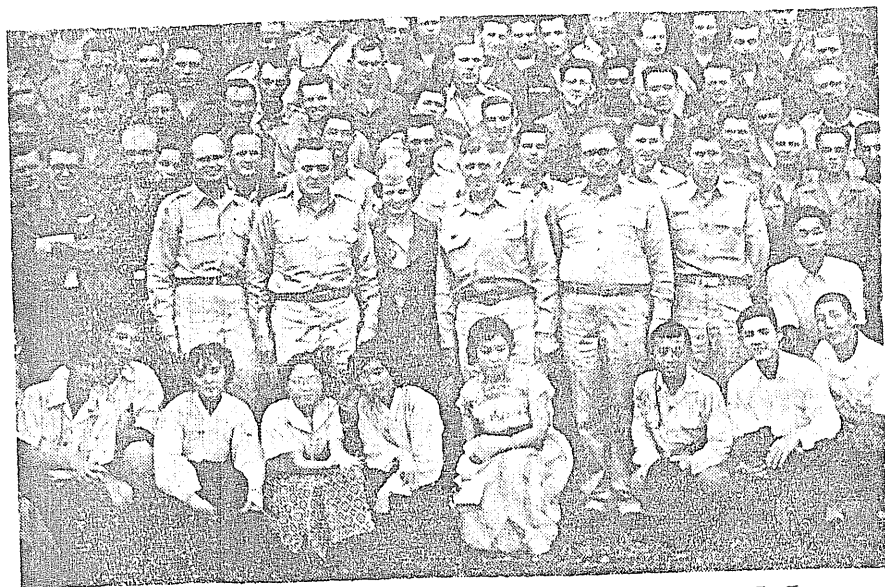
비교적 느리고 조용하던 항구 도시 부산은 6·25 전란으로 전율, 초조, 불안 그리고 적개심이 뒤범벅이 되어 극도의 혼란속에 잠기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시는 役事는 이 混亂期에 서서히 始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經綸이 오묘하심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나가야할 젊은 미국인 물몬은 성경대신 총을 들고 한국 땅을 밟았으나 “모든 말일 성도는 선교사”라는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바울의 교훈대로 기회를 얻든지 얻지못하던간에 주의 말씀 전하기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好奇心半 英語工夫半으로 釜山驛前 公會堂에 모이는 LDS 집회시간에 미군인들 틈에 한두 사람의 한국 청년들이 미군인들의 강한 간증과 겸손하고 자비로운 태도에 차츰 感化받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第一次 政府과견 장학생으로 미국 코넬 大學校에서 營養學을 전공하시고 博士 學位를 받으신 金浩植 博士任께서 學位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教會의 會員證과 아론 神權을 가지고 韓國으로 돌아 오셨다. 水產大學長의 직분을 맡게된 바쁘신 몸에도 不拘하고 安息日 에는 美國人의 集會에 그의 家族을 同半하여 參席하시게 되어, 美國人들 틈에 끼어 서툰 英語로 간신히 信仰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 韓國人 靑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信仰의 아버지로 받들게되





1954년 9월 7일 경마장 미군부대에서 헤롤드 비·리 사도님의 설교를 듣고

1954년 당시의 목론 군중 목사들



었다.

戰爭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美國人의 간절한 아버지께의 呼訴는 소박하고 단순하였으나 그것은 강철도 꿰뚫을 만큼 강한 것이어서 한국 불문의 信仰의 傳統은 바로 이런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金博士任의 歸國으로 많은 한국인 청년이 韓國人集會에 參席함으로 한국인을 爲한 平日學校 工課班을 따로

가며 하시는대도 김박사님께서는 일일이 노트해 가지면서 옳게 정확하게 한마디도 빠트리지 않고 통역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시던 溫和하고 謙遜하신 그 性品에 感化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當時 海軍中尉였던 이석구형제, 留學中인 권익현, 오계희, 국영길, 최재신 諸兄弟와 筆者의 信仰의 싹은 바로 이때 움튼 것이었다.

釜山 大火災로 因하여 公會堂이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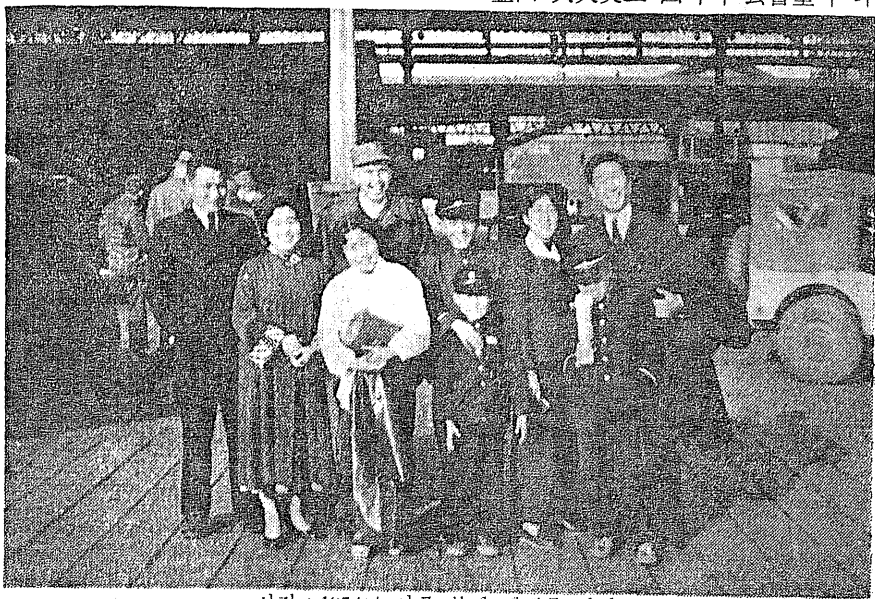


사진 : 1954년 이른 봄에 예배를 마치고

만들고 敎師로는 얼마후에 南極東 宣 敎部長으로 부름을 받으시 Heaton 兄弟가 通譯으로는 金博士께서 수고해 주셨다.

1953년 이른 봄의 일이었다. 10명 가까운 한국 청년을 앞에 놓고 요셉 스미스의 傳記에 관한 것을 Heaton 형제가 가르쳐 주시는데 쉬운 말만 골라

없어진 뒤에는 第一부두에 자리잡고 있던 Port Chapel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진해로 전근되었던 이석구형제, 당시 해군이었던 필자는 매주 작은 해군 정기선을 타고 부산까지 왔었으며, 귀대할 때에는 汽車를 타고 돌아왔던 이석구형제의 열열한 信仰의 態度와 가르침은 필자로 하여금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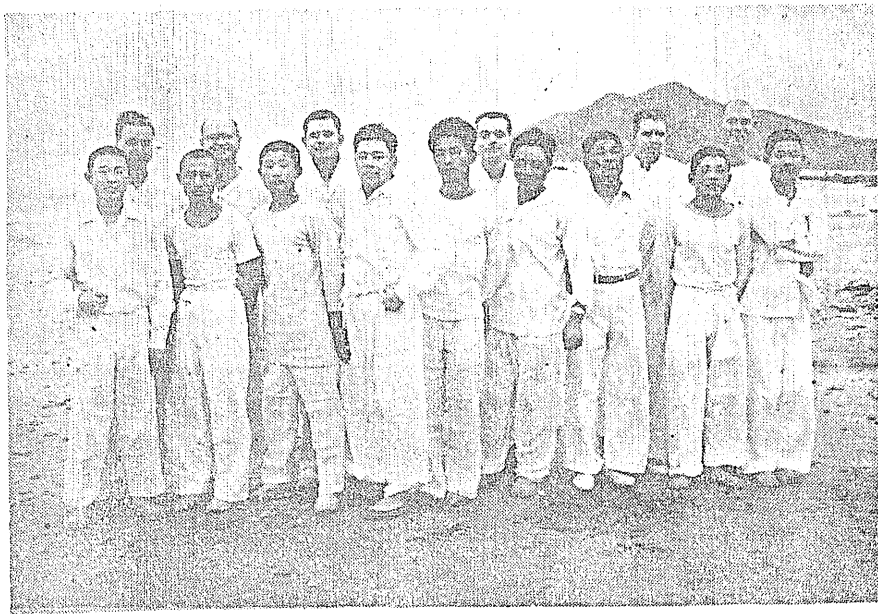


사진 : 1954년 3월 20일 송도에서 침례식을 마치고

금의 信仰人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Port Chapel 에서 集會를 갖기 前政府의 還都에 따라 金博士任과 그 식구가 서울로 가시고, 10명 가까운 한국인 물몬이 부산에 남게 되었으나, 적당한 集會所가 없어서 釜山市內에 散在해 있는 美軍部隊의 도서실, 휴게실, 사무실등을 빌려서 여러가지 집회를 보아 왔다.

Heaton 형제와 金博士任이 계시지 않는 釜山의 물몬들은 목자없는 羊과 같았으나 지금의 선교부장이신 Palmer 박사께서 軍牧으로 오시게 되어 다시 부산 물몬들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1954년 9월 심 이사도이신 헤롤드 비·리 장로께서 來韓 하시고 미 공보원에서 환영 대회를 가져 훌륭한 신앙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陸軍中尉 Palmer 軍牧의 노력으로 박재암 오계회 권익현 등 여러 형제들이 1955년 3월 20일 송도에서 침례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차츰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적당히 모일 장소가 없어 국영길형제 집에서 주일 집회는 갖고 상향회는 Port Chapel 에서 갖곤했다. 이 당시 Palmer 군목은 펍 조직적이고 규격에 잡힌 집회를 갖게 하고 계획된 교제 인쇄물을 일일이 타자해 가며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Palmer 군목의 주선으로 대청동 남쪽 산허리에 최재신형제의 집을 짓고 이 집에서 한국인 끼리의 집회를 갖게 되었다. 이 집을 지을 때 부산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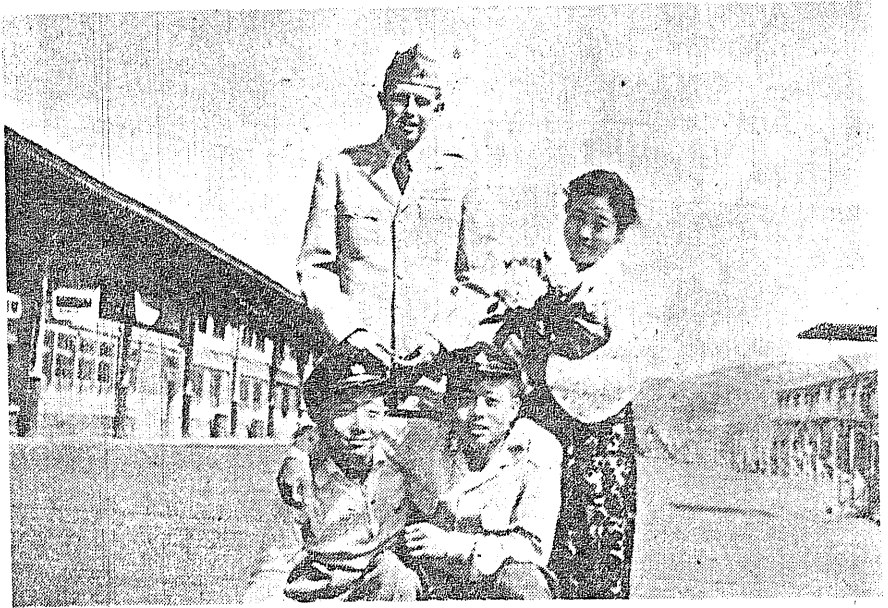
제 자매는 물몬의 정신을 여지없이發揮했는데 구도자 미군형제들까지 손수 집을 짓는데 도왔던 것이다. 집이 완성되자 한국 물몬의 그 따뜻한 분위기를 맛보고져 미군형제까지도 그곳까지 올라와 함께 예배를 보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해 주시기도 했다.

사진 : 1955년 4월 최재신 형제의 집을 예배 장소로 건축당시의 모습



1955년 8월 12일 사도경원회 회장이 시며 대관장회 보좌이신 요셉 월딩스미스 장로께서 방한해 주셨고 초대 남극동 선교부장으로 임명 받고 임지로 부

사진 : 1954년 이른봄 예배를 마치고.



임하시기 전 다시 찾아주신 Heaton 형제를 맞아 서면 허부리아 부대에서 환영 회의를 열었고, 몇 형제들이 직석에서 스미스장로로 부터 신권을 수여 받고 안수식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의 영광을 누린 필자는 집사의 신권을 부여 받았었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선교사 파견을 갈망하던 우리들은 스미스 사도님에게서 한국에도 머지않아 선교사가 파견될 것이라는 회답을 받기에 이르렀다.

1956년 5월 초순 Richard L. Detton 장로와 Don G. Powell 장로가 김박사님의 개인 보증으로 입국사증을 얻어 드디어 내한하여 부산에 찾아 오셨다.

(22페이지에서 계속)

훌륭한 신앙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1958년 中央支部에서 西部支部가 갈려 나갔고 東部支部는 東大門과 東部 둘로 나뉘어 한건물에서 각기 시간을 달리해서 모임을 가졌다.

1959년 8월 31일 우리의 信仰의 기둥이셨고 우리의 참된 목자시던 金浩植장노님이 저 世上으로 떠나 가셨다. 聖徒들은 애痛하였고 教會의 장대를 염려하였다. 地方部長의 자리는 관리장노던 부라운 장노가 계승하였고 제 1보좌 홍병식 제 2보좌 이호남 형제가 教會를 이끌어 나갔다.

1960년 여름 홍병식 형제가 물론 경 번역에 착수하였고 1967년 2월 20일 한인상형제에 의해서 번역출판이 완

동대신동 검정다리앞 이충 집을 전세로 빌려 주일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지부장으로 Detton 장로가 수고해 주셨고 주일학교를 筆者가 맡았었다.

얼마후 앤더슨장로가 동반자로 부임됐고 9월에는 이영범형제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어 Fletcher 장로와 같이 부임해 왔다.

이렇게 하여 부산의 회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서로의 우정을 두텁게 하였고 신앙의 간증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그 당시 잇을 수 없는 분은 김도필자매님으로 신앙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다.

(筆者：地方部系譜擔當評議員)

성되었다.

대망하던 한국선교부의 조직이 교회 본부에서 발간되는 “교회뉴스”에 실린지 얼마 후 카부장 부처의 내한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약속받게 되었다.

(筆者：新村地域長)

(9페이지에서 계속)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히 지킨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에 대한 담백한 그의 마음과 상호간의 협조를 고취한 영감적인 그의 능력,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경건심은 그의 지도자로의 위대성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야 말로 진실로 이 개척자들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품성이었습니다.

# 北極東 宣敎部 韓國地方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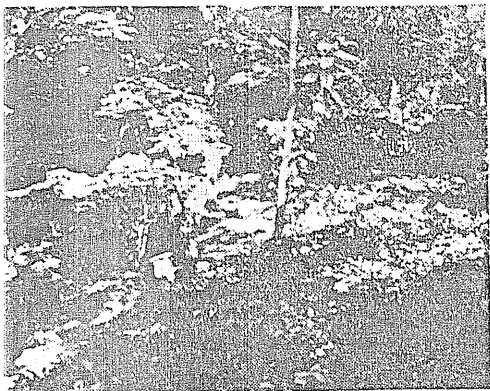
鄭 大 判



|     |     |     |     |     |     |     |     |     |     |     |  |  |
|-----|-----|-----|-----|-----|-----|-----|-----|-----|-----|-----|--|--|
|     | 피우엘 | 테   | 튼   | 유영준 | 오희영 | 이택희 | 정   | 윤   | 최경은 | 이성해 |  |  |
|     |     |     |     | 박종우 | 이계묵 | 이인순 |     | 최상훈 | 이태범 |     |  |  |
| 배응현 | 권익현 | 오계희 | 현건섭 | 홍병식 | 이호남 | 김호직 | 정흥주 | 양종환 | 김광호 | 이경자 |  |  |
|     |     |     | 지경덕 | 이영범 | 정영주 | 신채원 | 심복인 | 배양자 | 김정자 |     |  |  |
|     | 이동수 | 홍용우 | 김정숙 | 최명희 | 김영숙 | 지순자 | 홍금자 | 신동필 | 유경옥 |     |  |  |

政府가 서울로 還都함에 따라 부산에 피난왔던 會員들이 차차 서울로 돌아 오게 되었고 미8軍 예배당의 LDS 예배 시간에 얼굴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1954년 9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신 해롤드 비 리장로께서 주한 미군 물문은 격려하러 내한하셨고 1959년 8월 5일 여름 십이 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요셉 헨딩 스미스 장로께서



현남하시면 장흥단 부근의 숲

한국을 선교지역으로 현남하기 위하여 내한하셔서 남산의 장흥당 공원쪽 비탈(현재의 영빈관 구내)에서 현남기도를 드리셨다. 이 때로 부터 미군인과 함께 예배보던 한국인 성도들은 선교사의 내한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玉仁洞 所在 옥인교회(종로구 옥인동 18의 1)에서 예배를 보기도하고 해무청(종로구 적선동 51번지 현재 조달청 관리국 자리)자리 한방을 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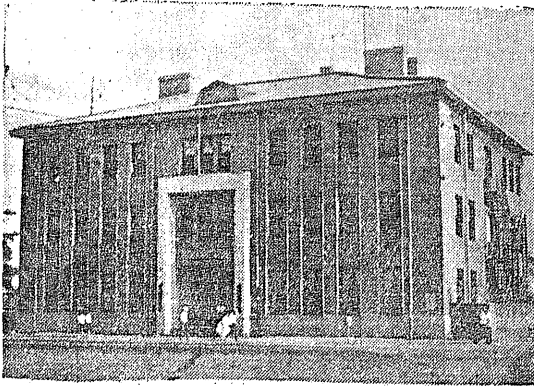
예배보기도 하였다.

드디어 당시 文敎部 次官이시던 故金浩植長老님께서 日本駐在 宣教師의 來韓에 必要한 手續을 서두르시게 되었다. 물론 敎 선교사의 來韓을 꺼리는 宗派 사람들의 은근한 압력으로 宣教師의 入國이 방해 되었으나 金長老任의 社會的 地位와 信仰의 힘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이 可能하였다.

1956년 4월 어느 화창한 날 新門路 파출소 길목 어귀가 떠들석 하였다. 선교사의 宿所로 전세낸 집(서대문구 신문로 2가 1-183)을 청소하러 가는 젊은 한국 물문 개척자들의 희망에 찬 웃음 소리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는 대화 소리였다. (당시 집회는 서울중학교에서 봄.)

자매들은 유리창을 닦고 걸레질 하며 형제들은 마당을 비질하며 기미줄을 치웠다. 언제나 리더格은 洪炳植兄弟, 세치의 혀로 일을 다 해치우는 人間 崔相洽兄弟, 체구는 작아도 남보다 앞장서는 玄健燮형제 청소하며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는 鄭영주 김광호 형제 불편한 몸이지만 뒤지기 싫어하는 이인순형제 남이야 떠들거나 자기 일만하는 이영범 이호남 신채원형제, 모두들 과연 어떻게 생긴 선교사가 오게 될까 궁금해 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떼를 이끌어 줄,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줄 목자를 고대하였다.

파우엘장로, 뎃튼장로, 거대한 체구



아직도 活動的인 分은 이호남 선교부 제2보좌와 申彩源 城北支部 主日學校監督, 鄭潤 淸雲支部長, 金正淑 地方部相互扶助會第一補佐 諸氏밖에 제시지 않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시의 會員에 依하여 한국 물문의 傳統이 세워지고

↑예배보던 해무청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온화한 表情 그 뒤에는 한국에 第一着으로 온 물문 宣敎師다운 決意와 干證을 엿볼 수 있었다.

1956년 6월 3일 서울 高等 學校에서 北極東 宣敎部 韓國地方部 서울支部가 組織되었다. 그때의 會員中 半數 가까이는 美國으로 건너가 工夫를 계속하고 있고,



↑신문로 선교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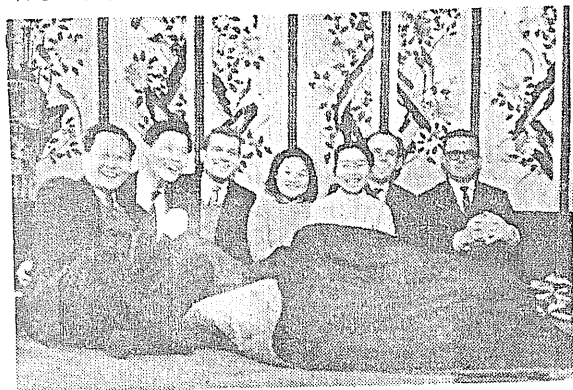


1965년 안드루스 북극동 선교부장과 파우엘 처음 선교사

훌륭한 信仰의 土藁가 잠힌 것이므로 개척자였던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해 7월과 8월에 宣教師의 보장이 있었다. 지금은 昆虫學으로 博士학위를 받아 하와이 대학에 재직중인 앤더슨장로, 영화배우 타이론파워치립 생긴 움장노, 동남인으로 온 사람을 붙들고 함께 우는 人情많은 김분장노 한국에 오려고 급식기도를 여러번 하다가 드디어 한국으로 파견되어 後日에는 第一代 한국 宣敎部長이 되신 카장노, 후렛처장노, 이들 선교사는 日本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므로 日語를 잘했었다. 그래서 求道者중 나이가 드신 분은 日語로, 그렇

기도 전에 통역을 해버리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간증을 얻을 수 있었고 모르는 교리, 성경 구절이 없었다. 또 자연스럽게 복음에 충실할 때 많은 사람이 배우고져 하는 영어 회화에도 능통하게 되는 축복도 얻을 수가 있었다. 이영범형제와 같은 분은 새벽 5시반 전사교들에게 한국어를 매일 같이 가르쳐 주느라 무척 애를 썼고 드디어는 한국인으로서 제 1 작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신문로에 드나든 물론 개척자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선교사를 사랑하고 정말 형제 자매로서 어울려 다닌 사람도 없었을 것 같다. 비록 서울고



1956년 12월 김박사님과 선교사들

지 않은 사람은 英語로 福音工夫를 하였고 일심있는 성도는 영어를 모르는 구도자를 위해 수시로 통역을 맡아 주었다. 매시간 매일 똑같은 공과를 통역하다보니 선교사가 이야기 하

등학교 삼층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를 보았지만 성도들의 간증은 굳건했고 구도자들은 진지하게 복음을 파고 들었었다.

우리말로 된 찬송가가 없어서 영어로 부르고 성찬 축복도 영어로 하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호남 제사의 낭랑한 베이스의 축복, 많은 사람이 축복의 내용보다는 이호남 형제의 음성에 매혹되곤 했었다.

서울지부는 비약적으로 발전, 매월 10명 가까운 구도자 —3·4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번씩 공부한—가 회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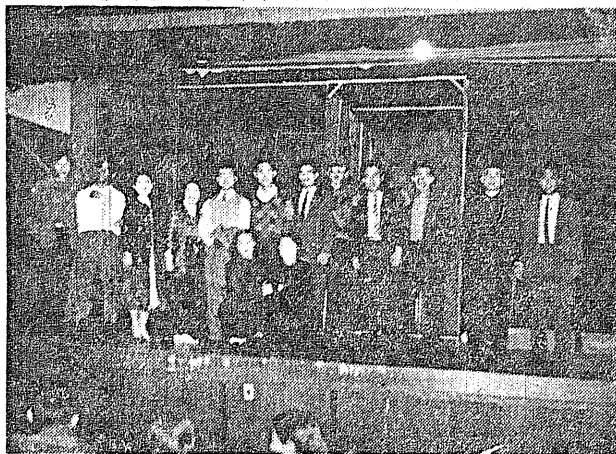


되었다.

이영범(내주물 가까이) 최명희(주예수의 군병들)홍병식등 여러분이 찬송가를 번역하여 정영주 김광호형제가 출판에 악보를 그려 6곡을 프린트 하여 집회에서 사용하였다. 악질과 가사가 맞지않는 부분이 많았으나 그런대로 의미를 살려부르는 기쁨은 어려운 영어로 부를 때 보다 훨씬 더 영감적이였다.

11월에 유락동 山12의 24의 2층집을 구입 카장로, 뉴먼장로가 집을 지켰다. 요리사도 없고 하우스 보이도 없었다. 그 당시 선교사는 9시 4시의 두끼로

1960년 가을 지방 대회 때 숙명여고강당에서의 연극



1959년 6월 피터슨 사도님과 안두르스 북극동 선교부장 부처와 상호 부조회 회원

하루 해를 보냈었다. 그러기에 복음공부가 세시를 지나기까지 계속 되면— 공부시간은 으레이 2시간 이상이었으니까—공부를 가르치면서 요리를 하곤 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자 크리스마스 케롤이라는 책을

경대관 형제가 만들어 냈다. 성도들은 이 책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었고 올겐도 없이 예배보는 안타까움을 안 미군 형제들이 올겐을 사주었다. 지금 삼청 지부에 처박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홍병식 형제와 이정순 자매의 결혼식이 유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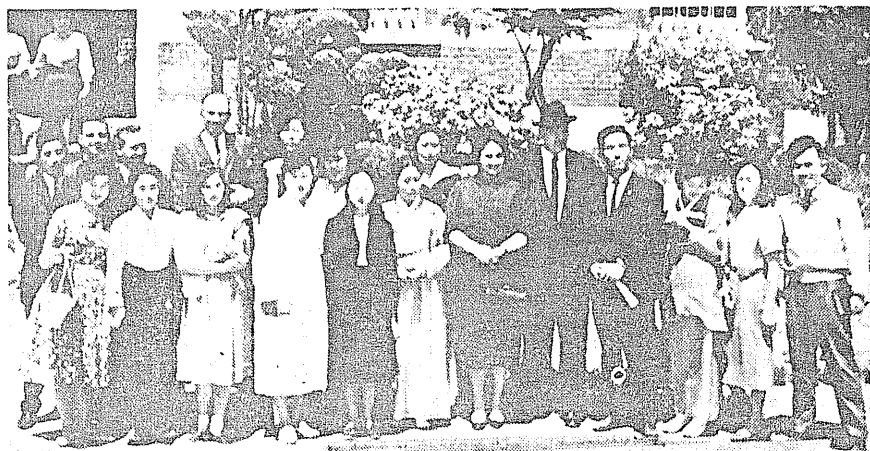
거행되었었다. 모든 성도들은 두분을 성심껏 축복하여 주었다. 많은 형제 자매가 주님안에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두분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협력하여 주었다. 크리스마스 케롤집의 뒤를 이어 여러 곡의 찬송가가 우리 말로 번역 프린트 되어 나왔다. 대부분을 흥빙식 형제가 해 주었고 장세천형제(MIA 우리 MIA, 성탄의 종이 울린다) 권익현 형제(즐거움에 배하세)등이 번역해 주었고 정대판형제가 악곡에 맞춰 가사를 고치고 악보를 원지에 그리고 프린트 제본하였었다. 아직 구도자매의 일이었다. 요셉 스미스의 간증, 어느 교회가 옳은가 등의 팜플렛도 회원들의 봉사로 번역 출판되었었다.

1957년 3월 한국 지방부 번역실이 창설되었었다. 스텐은 번역사 장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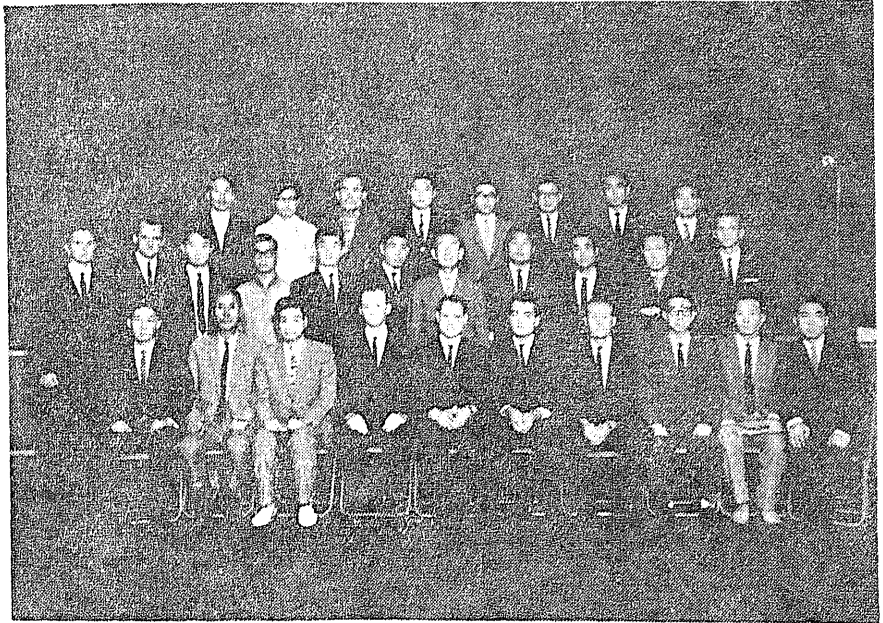
타이피스트 이정순, 인쇄 제본 정대판 세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만든 책이 그리스도의 생애, 보이는 글보다 보이지 않는 대목이 더 많은 인쇄가 엉망인 책이었다. 서울지부 형제 자매가 피크닉을 갔다. 장소는 백운장, 지금의 선교부다. 관리장노였던 카장로가 장차 선교본부를 점 찍게된 계기가 되었었다.

1957년 늦가을 서울 지부가 동부와 삼청 돌로 나뉘게 되어 지방부사무실도 삼청동으로 옮겨갔다. 선교사도 많이 보강되었었다. 글자 그대로 강인하게 생긴 스타우트장로, 한 번 맘먹으면 꼭 해내는 테일러장로, 휘파람 잘부는 보먼장노등.

1959년 마크 이 피터슨장로가 서울 상고에서 모인 지방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16페이지에 계속)



1961년 휘문고교 지방대회 대의 형크리 사도님과 안두르스 선교부장



1963년 9월 29일 한국지방대회시의 한국선교부장단, 지방부장단  
평의원 및 각 지부장단

## 韓國宣敎部 以後

韓 仁 相

1962年 7月 初代 韓國宣敎部長의 任命을 받고 Gail E. Carr 宣敎部長 內外분이 韓國에 오셨다.

이리하여 北極東 선교부에 예속되었던 韓國地方部는 韓國宣敎部로 昇格된 것이며, Carr 初代 宣敎部長을 中

心으로 現 三清支部(當時 中央支部)에 임시 본부를 설치했었다.

1962年 7月 8日에는 Carr 部長 一行과 함께 내한한 북극동 선교부장 안드루스 部長의 감리하에 휘문고등학교에서 한국 지방대회가 있었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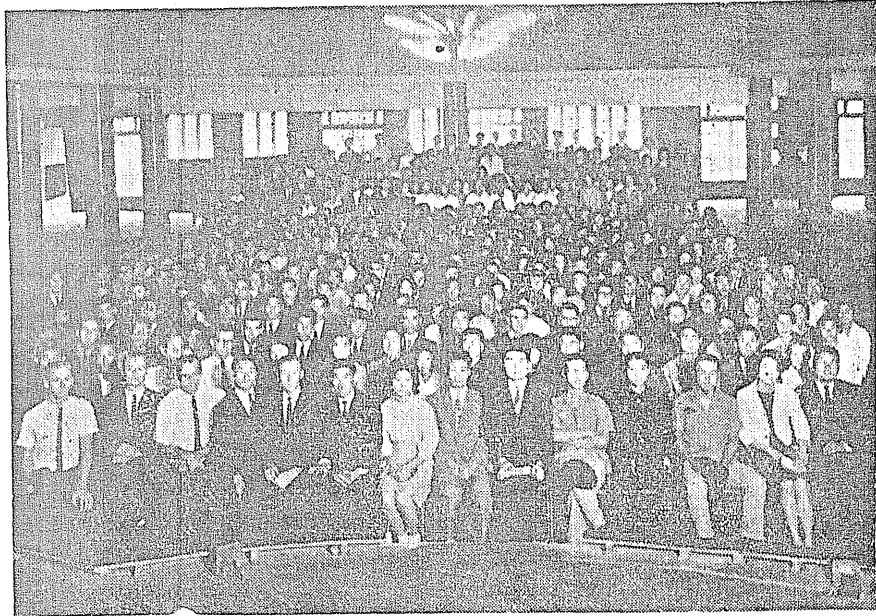
모임에서 안드루스 북극동 선교부장은 한국 선교부의 독립 및 초대 선교부장에 게일 이 카 部長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대관장회의에서 보내진 공문을 인용하여 발표했다. 이로서 무려 5年餘를 同苦同樂하던 안드루스 부장은 정말 한국선교부를 떠나게 되었고 하와이人 아내와 즐겨 부르던 알로하를 한국 성도들이 오래 두고 추억하게 했다. 세계 제 2차 대전時에는 B-24중폭격기의 조종사이기도 했던 큰 체구의 영국식 신사 안드루스 부장은, 이로부터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1959年 8月 31日 當時 韓國地方部長이시었던 金浩植博士님께서 別世

하신 뒤로는 繼續해서 한국의 管理宣教師가 地方部長을 겸임했었고, 카部長이 취임했을 때는 아담스 長老가 地方部長을 하고 있었다.

비록 一部分이기는 했으나 韓國에서 宣教師生活을 하면서 한때는 管理宣教師까지 맡았던 카 부장은 즉시 自己의 경험과 知識을 토대로 機構整備를 서둘렀고, 셀러스 장로를 제 1보좌에, 버틀러 장로를 제 2보좌에 임명했다.

초창기의 선교사였던 카 부장에게 韓國과 韓國宣敎部는 결코 낯설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宣敎部長으로서의 귀환을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기쁨으로 하여 그는 온갖 열의를 다하였다.



1963년 9월 지방대회시의 선교부 강당에 모인 회원들

한국도착 2個月餘後인 同年 9月 當時 料亭이었던(舊白雲莊) 청운동 7번지 所在 林野를 매입합과 동시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教會를 구성 그 初代 代表 理事를 맡았다. 이로써 地方部 本部였던 中央支部는 三清支部로 명칭을 바꾸었고, 본부는 청운동 7번지 現 宣敎本部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처럼 분주한 틈에서 번역실은 作業을 계속했고, 일단 재정비된 기구로 경전 번역 및 소책자 번역을 進行해 갔다. 이미 이때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은 몇 차례의 손질을 끝내고 있었던 것이다.

1963年으로 접어들면서 宣敎部는 主로 책자 번역 및 교회 조직 강화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1963年 7月에는 韓國地方部 平議員의 조직을 보았고 이충길 형제, 김용태 형제, 금바울 형제, 김복경 형제, 김동모 형제가 초대 평의원에 임명되었으며 현 장로 정원희 회장이 김석모 형제가 초대 장로 모임의 회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로써 한국 선교부와 지방부는 가장 힘든 역사의 길을 걷는 作業과 祈禱를 本格的으로 始作한 것이었다.

1963年 10月부터는 釜山東區支部의 개척이 시작되었고 水晶洞 658番地 10號에 釜山 東區支部를 定하였다.

1963年 12月 21日 現 한국 선교부장단 第二補佐이신 李虎男兄弟와 朴連順姉妹의 結婚式이 三清에서 있었고 宣敎部長이 그 主禮를 맡았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교회에서 탄생한 물문 가족은 한국의 첫 가족이었던 홍병식 형제님 부부를 필두로 여섯 번째의 가족이었다.

1963年 5月 한국 선교부의 건축담당으로 Roos 兄弟께서 내한 하시었고, 곧 7月에는 건축 선교사로 김상호, 윤재철, 김명웅, 남영진, 김성규, 김형표의 제 형제를 부르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비로소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서울 동부지부의 건물이 착수되었고, 그 후로 사경에 의거 김성규, 남영진 형제가 건축 선교사를 그만 두었고, 얼마 뒤에는 김형표 형제마저 그만두었으며, 김성문 형제(현재 복음 선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어 1964年 2月 10日, 韓國宣敎部 組織 以來 最初로 筆者가 한국성도로서 2年의 福音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大邱로 떠났고, 과연 한국인 선교사가 効果의이겠느냐를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은 주시했다.

여기서 먼저 이때까지 전 한국의 교회지도자 및 성도들의 관심사였던 물문경의 이야기를 여기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물문경은 한국에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착수되어 여러 차례 여러 번역사의 손을 거쳐 술한 고난을 겪었고 完全히 完成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해 10月 筆者는 물문경 번역의 책임을 맡고 대구를 떠나 서울로 와서 번역에 착수했다.



1963년 7월 동부지구 기공식을 마친 푸의  
투스형제와 노동 선교사들

둘째번 한국인 宣教師였던 황종섭  
兄弟가 부름을 받은 게 1963년 6월 15  
日, 이리해서 한국인 선교사는 두명으  
로 붙었고 둘은 여러 선교사들에서 부  
지런히 일할 수 있었다.

이때 선교부의 움직임중 특기 할 사  
실은 차차 한국선교부 한국지방부 산

하의 전 지부장을 한국 성도로  
대치해 갔다는 점이다.

1963년 11월에 한국인으로서는  
김호직박사님에 이어 두번째로  
정대관 兄弟가 한국 지방부장에  
임명되었다. 1964년 8월 大會때  
해임, 그의 第一補佐였던 李虎  
男兄弟가 地方部長자리를 맡았  
다. 成長에 따르는 온갖 고난과  
진통의 값을 치르면서 허허 벌  
판에 기초를 놓는 힘든 作業이

이렇게 繼續된 것이다.

1965년 7월 當時 Carr 宣教師長의  
解任 通報가 한국선교부에 날라들었  
다. 따라서 그의 後任으로 현 宣教  
部長이신 스펜서 제이. 팔머 부장  
이 결정되었다는 事實도 밝혀졌다.  
막 일을 始作한 자리에서 더 오래 머

1966년 12월 22일 칸타라 “거룩한 별”을 끝내고







1967년 3월 12일 이반스시도의 방한



1964년 4월 26일 부라운 부 대장관님과 헝크리사도님에게  
카네이션을 선사한 유치원 원아들

물고 싶다는 간절한 要求를 달래면서 Carr부장은 여장을 꾸몄고 하루 하루 신임 부장을 맞을 차비를 차렸다.

1965年 8月 5日은 또 하나의 歷史의 날이었다. 팔머 선교부장님의 家族(팔머부장, 팔머자매, 드와이트, 제넷트, 제임스) 다섯명이 한국 선교부에 도착한 것이다. 신구 선교부장이 인계 인수 사무를 집행할 當時 한국 선교부 산하에는 지부가 7이었다. 그러니까 초대 선교부장 내한 이래 정규 지부가 3이 새로 생긴 셈이 되는데, 원래 동부와 동대문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팔머 선교부장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이미 한국에는 그의 소개가 잘 되어 있었다. 학자요, 교수로서의 그의 능력과 인품을 한국 성도들은 높게 생각했고, 사실 그러한 이들의 생각은 틀림없는 것이었다. 치밀하고 분명한 성품은 곧 한국성도의 신뢰를 샀으며 10여년전 한국에서 군목으로 일한 경험을 십분 활용, 또한 미국에서 연구수집한 한국 선교부에 관한 온갖 자료를 토대로 바로 한국 선교부라는 커다란 조직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귀국을 일년 앞두고 된(만일 정상의 임기를 마친다면) 팔머 부장은 그간 교회의 대 사회 지위확립에 부신했던 연소자에게 보다는 기혼자를 中心으로 하는 선교정책을 택해 일 해왔다. 초대 선교부장의 이한 이전에 완수될 것으로 알았던 몰몬경의 출판은 1967年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을 보았다. 그리하여 몰몬경 출판이라하는 비중 높은 역사가 1967年위에 수놓아진 것이다.

내한 이래로 계속 지역 발전과 지부 확대에 관심을 두고 일해온 결과 현재 한국선교부 산하에는 8個 支部와 4個 地域이 모임을 갖기에 이르렀고, 일하고 있는 65名の 선교사 가운데는 8名の 한국인 선교사가 끼어있다.

현재로는 地域의 경우를 제외하면 支部長團 및 地方部長團은 韓國人 聖徒로 構成되어있고 宣敎部 歷史上 最初로 李虎男兄弟가 宣敎部長團의 一員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代 宣敎部長인 팔머 部長의 方針이 성도의 양의 확대가 아닌 질의 向上에 있었던 만큼, 한국 선교부의 對 사회 지위는 어느 정도 뚜렷해졌다.

이밖에도 교리와 성약 번역의 최종 정리라던지 교회내의 少年團 組織(1966년 4월 10일) 등은 成長의 표시라 하겠고, 1967年度 5월호 부터 성도의 벗을 外部 印刷所에서 조판 인쇄하게 된 것 역시 1967年度의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간 팔머 자매가 맡고있던 상호부조회 회장의 자리를 박우철자매가 맡게 된 것도 금년 본 선교부의 업적으로 간주 하고 싶다. 더구나 현재 부산지부의 신축 건물의 허가가 나와 있고, 서울 동부에는 지난 3월에 개원한 일문 유치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筆者: 地方部長團第一補佐)

◇ 韓國 敎宣에 힘쓰 歷代 宣敎師 ◇

<編輯室 제공>

1. Donald Powell
2. Richard Detton
3. Dean M. Andersen
4. Newell Kimball
5. Gail E. Carr
6. Larry D. Orme
7. Claude W. Newman
8. Karl Fletcher
9. 이 영 백
10. Vearl N. Taylor
11. David A. Strebe
12. Lowell E. Brown
13. Farrell R. Hawkins
14. Robert Stout
15. Niel W. Bowman
16. Cline G. Cambell
17. Rulen N. Porter
18. Eugene P. Till
19. Dale W. Rassmussen
20. Lee Roy Fry
21. Lester P. Stevens
22. James R. Bradshaw
23. Jack R. Jenkins
24. Barry K. Eillis
25. John T. Chadwick
26. Ross E. Tyler
27. Albert W. Hoffman
28. Robert H. Parkinson
29. Paul D. Scown
30. Donald B. Hill
31. David L. Waddell
32. Robert K. Adams
33. Bruce K. Grant
34. Glade G. Maw
35. Brian L. Sellers
36. Morris H. James
37. Carl E. Luke
38. Lester P. Thatcher
39. Robert L. Saunders
40. Richard K. Parrish
41. David D. Butler
42. Royce T. Grant
43. John R. Leasure
44. Sterling G. George
45. Darryl W. Harris
46. Michael E. Nicholes
47. Dallas Brent Clement
48. Bruce K. Adams
49. Claude S. Ashby
50. Bart L. Butler
51. Ronald K. Nielson
52. Marc A. Anderson
53. Ross H. Cole
54. Gene E. Goodwin

55. Roger H. Howard
56. William A. Williams
57. Lloyd J. Melling
58. David A. Peck
59. Warren K. Russell
60. Edwin H. Jensen
61. Fredrick D. Lee
62. Allen J. Westenskow
63. John M. Warnick
64. Darrell M. Tingey
65. Jon Christopher Thorpe
66. Evan M. Sproul
67. Jim B. Mower
68. William F. Dean
69. David L. Heber
70. Deroy H. Jenson
71. Moroni F. Savage
72. Bruce E. Van Horn
73. Lee Ren L. Walker
74. Dan E. Burke
75. John S. Scoville
76. Dee Roy Bangerter
77. Byron L. Schmidt
78. Steven Raymond Leishman
79. Robert C. Seamons
80. Fredrick W. Smith
81. Craig C. Williams
82. 한 인 상
83. Charles P. Dredge
84. Paul D. Johnson
85. Dennis C. Black
86. Spencer E. Tueller
87. 황 종 섭
88. Lewis B. Tippets
89. Rex M. Lee
90. Charles K. Akana
91. Norman I. Willard
92. Darrell Hall
93. Alford E. Stephens
94. Veldon R. Hill
95. Ryan D. Kearsley
96. Rex O. Carlson
97. Raymond Nelson
98. LeGrand K. Sadler
99. Charles C. Harper III
100. Richard L. Mortensen
101. Sheldon L. Nelson
102. David Weyerman
103. Stanley H. Carter
104. Larry M. Crowson
105. Francis M. Reeve
106. Steven R. Spencer
107. Edmund M. Mahoney
108. Richard F. Schmidt
109. Robert C. Anderton
110. James B. Miller
111. Robert L. Robbins
112. Bruce M. Snow
113. Don Alfred White Jr
114. Allan G. Perriton
115. Mark A. Peterson
116. Roger F. Taylor
117. 장 병 운
118. 천 낙 서
119. 김 성 문
120. David B. Ashworth
121. Bruce H. Winegar
122. Steven R. Robinson

## 예언된 그리스도 복음의 배교와 회복

그 분이 가르치신 참다운 종교가,

그 분이 행한 의식이,

그 분이 초자연 교의에 의한 배교가

이미 성경에 계신되었다.

이러한 권리의 사실을 부인한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  
여기에 있다.

상황에 입각한 길을 갈피하였다.

베드로가 예언한 「진유」의 회복을 갈구한

사람도 있었다.

말씀성도들은 이러한 배교의 사실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의 회복을 시는 일꾼에게 그런 사실을

말의 주권으로 소명 교회의 조직과 똑 같은

자신의 회복을 직장에 회복하시려는 사실은

명연하게 말할 수 있다.



매언의 세도  
사도 바울

"혹 영으려나 혹 말르나 혹 우리에게  
세 받았다는 것지보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세 돌설하거나 두려워 하거나  
하지 마나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러는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  
도하는 길이었도"

(베살로냐가 후서 1:10)



유명한 기록포  
마르틴 루터

"본민은 지금까지 주종삼 바는 심권  
에 인단한 교회의 개혁이지 결코 다른  
것이 이력다. 심형의 능력은 최고 부피  
하오를 본 이너리 줄러의 피피 되었다.  
그로 기록의 인에는 신의 진의 위격이  
있는 강력한 이성적 의거가 있을 따를  
이도"

본민은 그것을 고전원어아 말을 안부  
를 사이(사) 기록포는 주느디었다고 주  
알리는 여이다"





중단된 성신의 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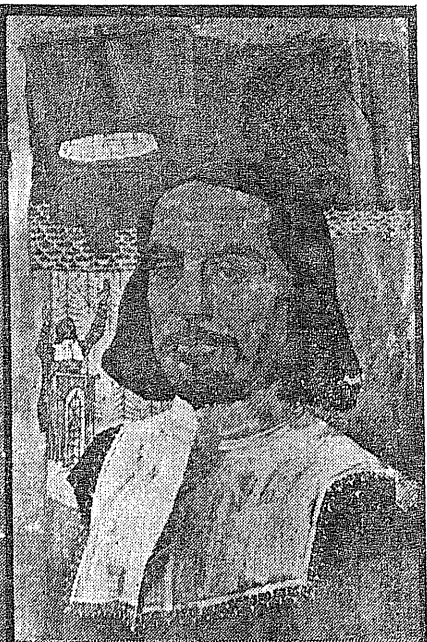
존 웨슬리

"2, 3세기 동안은, 교회에 그렇게 자유롭던 성신의 특별한 은사는 종식을 감춘지 오래고 그리스탄된 황제가 자신은 기독교도 라고 자처한 운명의 순간 부터 돕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거의 전부 없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차라리 이방인을 찾았을 뿐지도 모를 일이다.

기독교회 내에서 성신의 특별한 은사가 상실된 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인은 다시 이방인이 된 것이며 작은 황제만을 부뚱거 안고 있는 셈이다."



기다리는 새로운 사도

로저 윌리엄스

"지상에 인접한바 조직된 교회는 옳고 의심을 집행할 자격의 소유자도 없으니..."

교회에 미리 의서는 본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이렇게 고대하는 새로운 사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기독교의 회복을 내다 볼

**토마스 제퍼슨**

“종교의 창시자들은 벼수와 교리를  
예외 비치는 변형하여 신비주의, 상상  
오류에 빠지게 하였으며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이상의 사상이들에게까지도  
넓은 총력적인 기쁨을 만들어 놓았다.”

“초대 기독교가 회복 되리라는 전망으  
도 회복의 지는 공색의 힘세의 신복과  
자에게 의하여 줄기에 같은 불은 그로  
된 가치를 회복하는 일같이 많은 사람들  
이 알아야만 한다.”



「만유」는 회복되리니

**사도 바드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시라니 하나  
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천지자의 입  
을 의탁하여 말씀 하신 바 만유를 회복  
하시며 까지 하느니라 마땅히 그를 받  
아 두리라” (사도행전 3: 20-21)

123. Jon Gregory Taylor
124. 이 구 남
125. 이 경 현
126. 서 원
127. Clair Cox
128. Brent Crosbie
129. Samuel B. Pugh
130. John L. Stimpson
131. Ralph L. Alder
132. Loren Evans
133. Glen S. Hopkinson
134. Robert L. Nielson
135. Kenyon L. Peterson
136. Daryl Parker
137. Thomas Wesley
138. Robert Wiggins
139. Randy Tucker
140. Stanley G. Snarr
141. Patrick Holman

142. Steven L. Waters
143. Stanley W. Waters
144. 황 충 열
145. Micheal R. Major
146. Roger W. Wadsworth
147. Robert E. Peterson
148. Proffit
149. Stanley D. George
150. Maurice W. Jones
151. Micheal J. Healy
152. Melvin J. Thompson
153. Earl Nilsson
154. Wilford Evans
155. J. L. Hoffman
156. James E. Faulconer
157. 송 경 섭
158. Robert S. Stubbs
159. Curtis E. Nelson
160. Larry W. Lunt

(10페이지에서 계속)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일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는 반드시 지명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지부장은 안수례를 통하여 소속 지부내의 신권 활동을 관리할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한 지부의 제사를 예로 든다면 제사로 성임을 받게 되면 그는 성찬을 축복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지부장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이 의식을 집행할

권리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지부의 지부장은 다른 지부의 신권 활동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신권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일컫지만, 신권의 열쇠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명을 말합니다.

\* 요셉 에프 스미스 책 복음 교리 제6판

# 韓國聖徒의 어제와 오늘

|       |                         |
|-------|-------------------------|
| 參 席 者 | 襄 一 文 (韓國宣敎部長)          |
|       | 이 호 남 (宣敎部長 第二補佐)       |
|       | 차 중 환 (韓國地方部長)          |
|       | 한 인 상 (地方部長 第一補佐)       |
|       | 배 영 천 (釜山支部長)           |
|       | 정 대 판 (新村地域長)           |
|       | 천 낙 서 (宣敎師)             |
|       | 김 정 숙 (地方部 相互扶助會長 第一補佐) |
|       | 신 채 원 (城北支部 主日學校會長)     |
| 司 會 者 | 영 달 (韓國地方部長 第二補佐)       |

때 : 1967년 7월 18일 오후 3시

곳 : 한국선교부

司 7월 24일이 바로 “개척자의 날”로 현대의 모세라고 일컫는 브리감 영이 성도들을 인도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에 진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한국성도의 개척자인 구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오늘의 성도들이 갈 길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천낙서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千 (기도)

司 자리가 매우 협소하고 무덤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보

라치는 겨울에 손수레를 끌고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해 왔던 그 고난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30도이상의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으리라 믿니다.

물론 개척자들이 어떻게 험국의 길을 걸어왔는지는 이미 잘 아시는 사실이므로 무대를 한국에 국한시켜, 한국성도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말씀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물문”하면 먼저 김호직박사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대관형제님께서 김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鄭 김박사님은 6·25사변전에 국

비장학생으로 도미하셨다가 거기서 칩레받고,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물몬이 되어 아른 신권의 집사 신권 까지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司 그럼 김박사님이 귀국하시기 전에는 물몬 교회가 한국에 없었습니까?

李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박사님이 부산에 계시는 때에도 몇몇의 미군 형제들과 모이셨으니까요.

司 지금 이형제님께서 미군형제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미군중에 물몬들이 많이 있었고, 이자리에 계신 팔마 선교부장님도 군목으로 참전하셔서 많은 한국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칩레를 주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팔마 부장님의 당시 경험담을 잠깐 들어보는 것이 좋겠군요.

李 이미 자주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찌기 한국인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한국동란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생활에서 야기되는 아름다운 일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빛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형제님이 방금 얘기한것 처럼 김호직형제가 미군형제들과 함께 모였고 이형제를 포함한 여러사람이 미군형제들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미군 형제들은 이때 이미 선교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핑클리사도는 몇해 전에 임푸르브먼트 이라에 실릴, 한국선교부에 관한 원고를 써서 검토해봐 달라고 내게 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선교부의 약사와, 두 선교사가 일본에서 파견되어온 경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긴편지를 써서 “사도님은 한국선교부의 시작에 관하여 실제로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저 일찌기 선교사업을 한 훌륭한 선교사는 미군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한국인 사이에서 생활하였고, 어느 사람은 현재의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상으로 전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 전도하며 오늘날의 선교사가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나는 김호직형제에게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박사학위라든가 문교부차관이었다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간증을 성실히 간직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그의 신앙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복음을 생각하였고 사회 생활보다 복음의 생활을 더욱 중요시 하였습니다.

司 그럼 미국군인 형제들과의 모임을 통해 부산에서 먼저 교회집회를 갖기 시작했군요.

申 네, 부산에서 처음에 모이다가 환도하여 서울에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8군으로 가서 “아미 에듀케이션 센터” 빌딩을 빌어 교실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무청 자리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司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옮겨가며 예배를 본 것이군요. 그 연대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申 1953년입니다.

司 그후 1955년에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요셉 필딩 스미스께서 한국에 오시어 이 땅을 선교지역으로 봉납하셨다고 하는데 신형제님이 그것을 목격하셨지요?

申 네.

司 그자리가 어디쯤 됩니까?

申 지금의 장충 체육관 위어가면 충현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영빈관을 지었습니다만 그 근처입니다.

司 그 때 몇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 했습니까?

申 제가 알기로는 미군형제가 다섯 있었고 김박사님과 제가 있었습니다.

司 그럼 한국인으로는 두분이 계셨나요?

申 네.

司 그후 곧 한국인 교회가 세워졌나요?

申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것은 1956년 4월이었습니다.

司 그럼 그때의 일을 한인상형제님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텐데, 제일 처음으로 한국인만으로 서울에서 집회를 가진 곳은 어디였는지요?

韓 선교사가 처음와서 사신 곳은 신문로입니다. 그때 돈지, 파우엘 장로가 왔는데 키가 무척 크고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고등학교 3층에서 예배를 봤지요.

그때는 이호남 형제님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머리를 박박 깎았는데



이영범형제와 민갈아가며 성찬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한40명이 나왔어요.

司 한국인만으로 40 명입니까?

韓 네.

司 침례받은 회원은 몇명쯤 되었습니까?

韓 반반쯤 되었습니다.

襲 선교사 분야에 관하여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바, 선교지역으로 설정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에는 물론 군복이 13명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들을 관리하는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김도필자매님이 어제 자기의 침례증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증서는 내가 당시의 한국지역 책임자로서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시에 서울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주로 부산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김도필, 박재암, 국영길, 최재신, 배영자가 있었고, 서울에도 활동적인 회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김호직형제도 있었으나 문제는 한국인의 교회 조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회원들은 미군형제들과 집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의 대관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모임에 나오고 있으나 그들의 교회 건물이 없고 집회장소와 조직이 없습니다. 다만 군인들 집회에만 참석하고 있으나 미군들은 안정된 사

람이 아니므로 왔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선교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후 회답이 왔는데 12사도의 한분이신 헤롤드 비·리장로를 한국에 보내어 이 문제를 조사하게 하겠으니 그를 따라 한국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사도는 당시 일본 선교부장으로버튼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쏘트레이크에 돌아가서 한국을 선교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하여 1955년에 요셉 필딩 스미스께서 한국에 오셔서 선교지역으로 봉납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국을 떠난 1개월 후에 왔으며 그때부터 선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李 헤롤드 비·리가 오셨던 것은 1954년 9월 3일입니다. 왜 내가 아느냐하면 내가 9월 5일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벤푸리트장군의 전용차를 타고 온것 같아요. 세단을 타고 헌병이 따라오셔서 난 어마어마한 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바로 헤롤드비 리 사도였어요.

申 내가 생각나는 일은 그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오신 것입니다. 왜군복을 입고 오셨느냐고 물어봤는데, 미국무성에서 특별 장군대우를 해주어서 특별 군용기로, 자동차도 군용차를 내어 주었으며 미 8군 사령관도 함께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襲 헤롤드 비 리는 4류장군으로 로버슨형제는 소장으로 비공식 계급장을 달고 왔는데 그들이 처음 부산

에 왔을 때 나는 그 허름한 차림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해롤드 비·리와 로버슨은 남부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참부에 가서 좋은 새 군복을 갖다가 입으시라고 했더니, “왜 그러나 내 옷차림이 초라해서 창피한가?”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선지자는 이 보다는 더 훌륭히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하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司 그럼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서 침례 이야기를 해 볼까요. 김정숙자매님은 언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金 제가 침례 받은 것은 1953년 1월 3일이었어요.

司 그럼 한국이 선교지역으로 봉납되기 전이지요?

金 전이죠, 부산피난시 미군형제와 함께 모일때죠.

司 그때가 몇살 때였습니까?

金 일 네살.

司 한인상 형제님은 몇살때 침례를 받았습니까?

韓 고등학교 2학년때입니다.

司 김자매님보다 후로군요?

韓 4년 후였습니다. 1956년에 교회에 나왔어도 처음엔 흥미를 못느꼈습니다. 그냥 나왔다 들어가고 놀기도 하고.

司 그때 교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으로 지금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韓 많이 달랐죠. 시내에서 그때

에도 연기가 나고 있었고 전차는 가끔 오며, 빈벽만 있었고. 빠스도 지금 처럼 많지도 않았지요.

司 그러니까 전쟁으로 많이 파괴된 그대로였군요.

韓 네, 저는 처음 MIA에 참석을 했었는데 형광등 불빛이 다르게 느껴졌었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서니까 전부 다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최상훈형제, 홍병식형제, 이호남형제, 전부 참 친절했어요, 그리고 미군형제들도 몇명 나왔는데 매우 친절했고, 아무튼 영적으로 가득차 있었던것 같아요.

司 교회가 처음 생기고 침례받자가 늘어나면 신권 소유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집사에서 교사를 거치지 않고 제사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지요?

韓 이호남 형제님이 그랬죠.

司 이호남형제님께서 그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까요?

李 네, 제가 집사는 김호직 박사님에게서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셉 필딩 스미스 형제가 오셔서 봉납하시고 저기 8군이 있는데서 합동에 배를 보았읍니다. 그때 이석구 박사님도 역시 함께 하셨는데 집사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늘 제일 앞에 앉았읍니다. 이석구박사도 그랬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그분이 해군중위였어요,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요셉 필딩 스미스께서 단상에 나

가시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이호남, 이석구”하고 부르시잖아요. 둘이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요. 그랬더니, “Are you ready to receive priesthood?” 하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었더니, “Stand up!” 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더니, “Are you ready to receive priesthood, Aarronic priesthood?” 해요. 그래서 나는 잘못 아신 것으로 알고, “I am a deacon”하고 집사라고 했더니 “I know.” 하시더니 아무말 안하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司 그때 받은 신권이 뭔가요?

李 제사예요, 이석구형제님도 저와같이 제사가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권이 뛰는 것도 있나 했읍니다.

司 초창기이고 신권 소유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요셉 필딩 스미스께서 특별히 영감과 계시를 받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신권을 받으신 분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英 저도 그런 경우 인데요.

司 네, 배지부장님은 무슨 신권을 받으셨습니까?

英 교사에서 장로신권을 받았읍니다. 부산 지부장으로 계시던 선교사가 귀국하셨을 때인데 팔마 선교부장님이 부산에 오셨어요. 아마 임명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하루는 이호남형제님과 함께 오셨는데 신권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도 있는가하고 주저하다가 이것이 하

나님의 뜻인가보다 생각하고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司 네, 그러니까 그것은 최근의 일이군요. 점차 한국인이 많이 침례를 받으므로서 한국인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일본 북극동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왔는데 서울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유락동인가요?

李 건물을 짓기 시작한거요?

司 네.

李 역시 유락동입니다.

司 그때 그것이 동부지부였나요?

李 그랬읍니다.

司 그 다음은?

申 삼척지부

一同 중앙지부죠.

司 그 때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鄭 57년 10월인가 11월이죠.

司 그후 중앙지부에서 서부지부가 59년에 갈라져나갔고, 유락동 건물에서 성동지부와 동대문지부가 따로 집회를 가졌고, 62년도에 한국선교부가 설립됨으로써 중앙지부는 삼척과 청운으로 나누어졌지요. 그후에 다시 대구지부와 부산 동구지부가 생기고, 성동과 동대문은 용두동으로 합쳐 동부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최근에 팔마 부장님의 노력으로 성북지부를 비롯해서 신촌, 광주, 인천, 대전, 영등포에 새로운 지역이 개척되었는데 새로운 지부가 늘어가는 것은 한국에서 선교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車 네, 우선 선교사가 많이 늘었고 침례받은 회원이 늘므로서 지부가 늘고 한국지방부가 조직되고, 평의원이 활동하며 장로 기원회라든지, 지방부 보조조직이 조직되어 지부조직을 협력하고 있음은 큰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司 아직 선교지역이긴 합니다만 스테이크나 와드의 면모는 갖추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럼 발전 일로에 있는 한국의 말일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겠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현재 발전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생각하는데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지방 부장님께 부탁드리 볼까요.

車 회생적으로 교회 일을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김박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박사님은 당시에 생물학회 회장이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총회가 있었읍니다. 여기서 논문도 발표하는데 김박사님은 토요일은 나오시는데 일요일은 안 나오세요, 난 침례 받고도 그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후 김박사님을 만나서 “왜 학회에 안 나오십니까?”했더니, “나는 일요일엔 거기보다 교회일을 해야겠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 있는 일이고 더구나 김박사님은 회장인데도 안 나오셨어요.

司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는 생물학회 회장이었으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엔 참석치 않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럼 김박사님 말씀이 나왔으니 잠깐 우리가 현재의 우리 약

점을 살피기 전에 김박님께게서 본받아야 할 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군요. 먼저 따님되시는 김자매님, 말씀해 주실까요.

金 할 얘기가 많지요. 우리는 보통 조그만 일에 화를 잘내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화내시는걸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고요, 아픈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 하나를요 행동으로 잘 나타내시는 걸 감명깊게 봤어요.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고요. 아들딸이라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원이면 누구든 염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한분 한분을 다 기억하셨어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다른 일에 바쁘신데도 교회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鄭 나이가 많으신데도 젊은 사람과 어울릴 수가 있으셨다 하는 것 참 특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은 유락동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모두들 저녁을 안먹었음을 아시고 함께 싸구려 우동집에 들어가 100원짜리, 지금 10원짜리죠. 우동을 사주시고 함께 맛있게 잠수시던 일이 기억납니다.

司 참으로 훌륭한 교회지도자를 잃은 것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김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교회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화제를 종전의 얘기로 돌리겠습니다.

鄭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미군

형제들이 전쟁중이라 절박감을 갖고 주를 찾았던 심정은 당시의 한국 회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회원들의 따뜻한 악수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구도자가 왔으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여 처음에 지냈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공감한 것인데 신지역에서는 신권 임무라든지, 역원 임무, 또는 복음 지식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예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지역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의 한국 성도들은 모두가 한국의 개척자라고 보겠는데 이에 따르는 사명감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김정숙자매님께서...

**김** 아까 지방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요, 여자들도 회생적으로 봉사를 해야겠는데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집안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애로가 많지요. 현재 박우천자매님이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신데, 박자매님이 열의는 많지만 회원들의 협조가 어렵군요. 모두가 생활하기에 바쁘기는 하지만 자주 만나서 공부도 하고, 위로도 하며, 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 그럼 지방부장님께서도 한국

성도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방안이 있으실텐데, 말씀해 주실까요?

**車** 글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을 걱정않는 형제가 될 수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생활에 휘말려서 떨어져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김** 우리 상호부조회를 보더라도 사업을 계획한다 봉사를 한다는 등의 것이 무척 중요한 합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우리 교회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데해주고 자기의 교통비라도 줄여서 쌀한톨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시** 상호부조회의 뜻토가 원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상호부조회가 하루 바삐 제구실을 다해서 어려운 중에 사는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들어야 될 말씀이 많으니 다만 시간상 다음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처럼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한국 성도들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도입을 끝내기 위해 정대관형제님에게 폐회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록—녹음)

# 支部 소식

## 城北支部

### 西部支部

6월 15일 “여름밤의 초대”란 이름 밑에 모임을 가졌던 서부지구 상향회는, 그동안 계획성있게 준비했던 순서로 해서 초청됐던 많은 지부로부터 찬사를 아낌없이 받았다. “아이스 크림” 손수레를 직접 끌고 나와서 크림을 판았던 상향회 역원들의 “아이스 크림”을 의치는 습씨등의 계획은 회원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었었다.

지난 4월 2일 지부로 승격된 성북지부에서는 바라던 새로운 피아노를 7월 6일 구입하였다.

그 동안 피아노로 예배보기 위해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금식도 했었던 이들은 아직도 상향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북요일 아침 일찍부터 서로 소식을 전해받고 웃도록 웃음꽃을 피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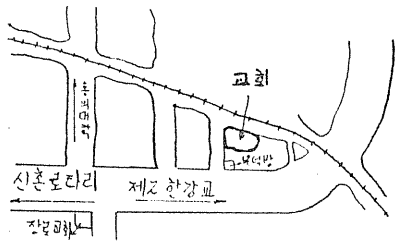
### 新村 地域

신촌지역은 그간 소음이 많은 신촌로타리에서 용교동 철로가로 7월 8일 이사해서 9일 그 예배를 보았다. 새로운 건물을 갖게된 신촌지부의 회원들은 이사집을 날르느라 맘을 뻔뻔 흘리면서도 호뭇한 표정들이어서 협조와 신앙의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신앙의 즐거움을 얘기해 주는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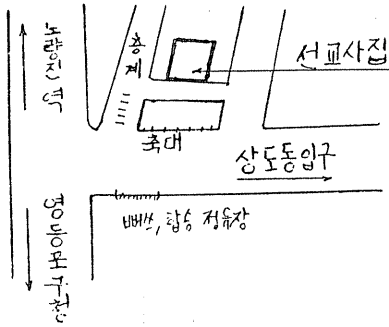
사진제공 : 서부지구

서부지구 지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 과영 형제와 동부지구 김 우자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7월 1일 오후 1시 부터 서부지구에서 있었다. 매일문 선교부장의 주례로 거행된 이날의 식은 서울의 많은 성도들로 인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축복으로 가득찬 신랑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의식으로의 결혼이 얼마나 뜻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했다.



(이사간 신촌지역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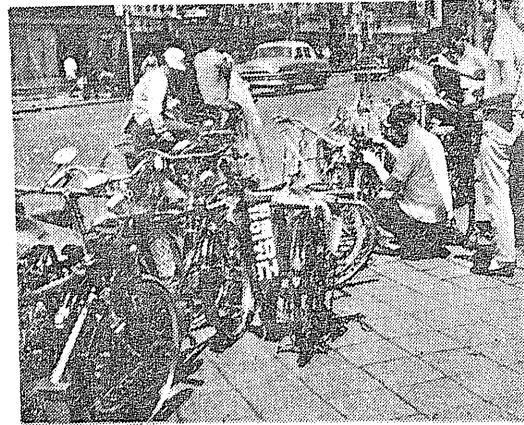




(영등포 선교사집 약도)

선교부에서 출장 선교를 하던 벨슨 스티프스, 황 충열, 스노우等の 네 영등포 선교사들은 영등포지역 모임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이사를했다.

6월 18일 첫 주일학교를 갖았던 영등포지역의 집회는 김 명웅 형제 집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무릅으로 고생하는 이 지역의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 보다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의욕이 대단했다.



사진제공 : 대구지부

작년 11월 2일부일 4까지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한미친선 농구 대회를 가져서 이 지역에 선교의 일원을 담당 한 바있는 대구지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경북 자전거 경기연맹과 대구 중앙지부가 주최하여 한미 친선 자전거 하이킹 대회를 가졌었다.

대구에서 15키로 떨어진 송림사를 왕복하는 신문과 방송 광고로 인해 많은 시민이 참가 했었고, 市에서는 엠블런스(구급차)를 제공해주 었으며 美八군에서는 사고 대비 추력이 준비 되어 목적지 까지 열을 지어 떠났었다.

경찰차의 에스코트로 중앙통을 거쳐 市外로 빠진 이날의 시가지의 퍼레이드는 市民들의 시선을 모았고, 특히 자전거 뒤에 붙인 "말일성도"라 새겨진 깃발은 시선을 모았었다.

이날 "행운의 추첨"에 당첨된 사람

에게는 교회의 신전이 새겨져 있는  
뜻 깊은 벽걸이를 상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대구지부에서는 6월 23일 부  
터 소년단 제일회 야영대회를 2박 3  
일간 실시하였다. 팔공산 상봉의 텐  
트에서 교회회원을 맞은 둘째날의 소  
년단원들은 사기를 고무시켜 준 형제  
애에 다시 한번 감격했다고.

### 釜山 支部

부산지부에 새로운 건물이 서게 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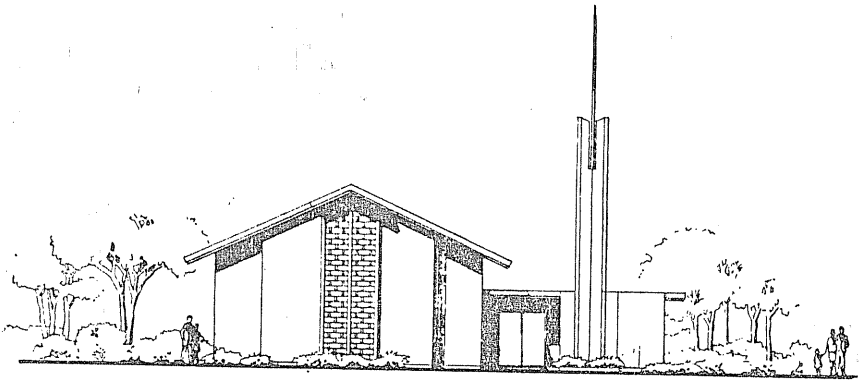
한국에서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지부는, 그동안 지부건물을  
갖기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다.  
건물을 갖게된 부산지부에서는 건축이  
시작되면 몸과 마음을 다한 자신의  
손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기쁨 때문에

7월의 더위도 잃게 되었다고.

6월 24일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지부  
교회건물을 이용한 첫번 결혼식이 있  
었다. 배 영천 지부장의 주례로 열린  
정상식 형제의 이날 결혼식은, 축복  
하는 회원들의 부드러운 미소로 가득  
했었다.

### 계보 도서실 이사

선교 본부 사무실 북쪽의 그늘에  
있었던 지방부 계보 도서실이 번역실  
옆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계보에 관  
한 자료 조사집의 번역으로 차차 궤  
도에 오르고 있는 계보사업은, 그 간  
의 수집된 자료만도 오백여권에 달하  
는데, 앞으로의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모든 계보위원들은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있다.



승인된 부산지부 건물 전면도

## 동구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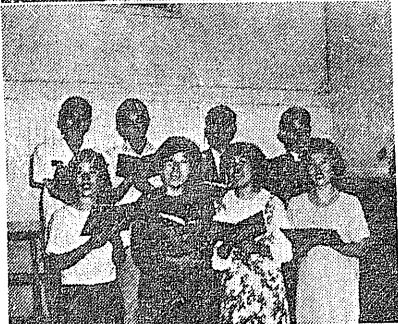
지난 5월 6일 부산 수정 성당의 청소년 배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진 동구지부 청소년들은, 회복된 복음 안에서 자라는 청소년임을 승리로서 과시했으며, 친선 경기에 참석한 수녀에게는 성도의 벗 5월호를 증정했다고.

부산 동구지부에서는 6월 6일 지부장단 송 재현 장노의 주선으로, 김해 비행학교의 견학을 겸한 소풍을 가졌었다. 이날 소풍에서 그곳 군인 교회 장병들과의 친선 배구 대회에서 동구지부는 승리를 차지했으며 잔디밭에서 가진 민속무용은 말일성도의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어서 92명의 참석자가 다같이 흐뭇해 하였다. 특히 이날의 방문기념으로 그곳 교장과 군목에게 한국판 “물문경”을 증정한 것 그리고 장교 전원에게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란 소책자를 나누어 주어 관심을 갖게 한 것등은 뜻있는 일이었다.

6월 23일부터 25일 까지 가진 “1967년도 년차 지부대회”에서는 이제까지 한국 지부대회사상 최고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찬사를 받은 동구지부는 여러 더 좋은 모임을 준비하겠다고.

## 신 호범 형제 다녀감

하와이 L. D. S Church College 교수 신호범형제가 7월 7일 서북 항공기



편으로 내한 했다가 18일 같은 차편으로 귀국 했다.

부인과 함께 귀국 했던 신 형제는 이번 방문동안 한일회담에 대한 박사학위 자료 수집을 했었으며 일본의 농어촌을 둘러서 한일회담 후의 일본의 농어촌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겠다면서 한국성도들과 여러날 같이 하지 못함을 애석해 하였다.

### 힐럼 교수 방문

브리감 영 大學 政治學 教授이며 革命에 관한 연구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힐럼 교수가 월남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귀국도중 한국을 들렀었다. 7월 11일 한국 선교부를 찾은 그는 발전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지금 월남에도 군인 형제들에 의해서 약 30명의 말일성도가 있다고 그곳 소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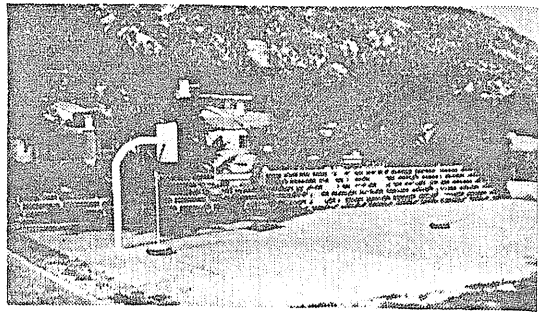
월남에 있는 동안 군사대학 창설과 그곳의 교수직을 겸했던 그는 9개월

간 월남에 있었으며 그 동안 軍民의 협조에도 관계했었다 한다.

### 관람대 설치 완료

그 동안 운동 경기 때 마다 의자를 운반했던 농구장에 400석의 관람대가 설치 되었다.

청소년대회와 브리감 영 대학 농구팀의 시범경기를 첫손님으로 맞을 관람대는 푸른 색으로 단장되어 날을 기다리고 있다.



<61페이지에서 계속>

기자: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자매: 저의 직계는 사보텐이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기 편한 때문입니다.

기자: 네, 그러면 계획중 이신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민형제: 교회엘 더 열심히 나가서 많은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교회의 지부장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 만큼 보고 대할 것은 붓 되더군요. 그 분 밑에서 일운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들 신우이도 곧 교회엘 나오도록 해야 겠지요.

기자: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말씀 다음 기회에 더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성도의 벗 퀴즈(5)

## 문 제

다음의 경전의 출처를 쓰시오.

1.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
2. 나는 선한 목자니라.
3. 사람이 무지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

## 응모 요령

1. 문제와 해답을 쓰고 주소, 성명, 성별과 소속 지부명을 명기할 것.
2. 해답은 7월 20일까지 성도의 벗 편집실 앞으로 보낼 것.
3. 매월 정해답자 5명씩을 추천하여 3회 당첨자는 성도의 벗 1년분을 증정함.
4. 정해답자는 “성도의 벗” 9월호에 발표함.

## 제 3 회 문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정 답

1. 가장 나이 많은 분 : 요셉 휠딩 스미스 · 1876년 7월 19일  
가장 나이 적은 분 : 토마스 S. 몬슨 · 1927년 8월 21일
2. 물문경은 주전 600년부터 주후 421년 까지의 기록입니다.

### 정 해답자

|      |   |   |          |      |   |   |          |
|------|---|---|----------|------|---|---|----------|
| 동구지부 | 방 | 춘 | 성 형제 (2) | 동부지부 | 고 | 천 | 석 형제 (2) |
| 삼청지부 | 강 | 춘 | 봉 형제 (2) | 청운지부 | 김 | 문 | 순 자매 (3) |
| 동부지부 | 김 | 문 | 자 자매 (1) |      |   |   |          |



7.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示現)을 받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 이 것 이 물 몬 이 다

(전효의 계속)

리차드 엘 · 이반스

물몬의 결혼관과 가정생활관 : 수년 전 不死 不滅에 關하여 쓰여진 책 가운데 천국內的 가족회의를 묘사한 그림이 감명깊이 상기됩니다. 이 그림에서 미술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축복된 자리에서 서로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제회를 그린 모습을 그렸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가족과 동반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도 없으며 가장 높은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말일 성도들은 죽음으로서 부부의 결혼 관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전 11:11) 이러한 결혼은 구세주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 16:19)라는 말씀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물몬 신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활관계—가족과 친지를 포함한—는 물





## 8.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본의 신앙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영원한 것이라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 결혼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 일부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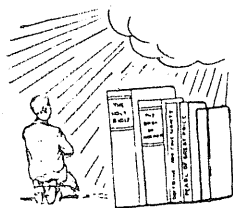
한때 물론교도 중의 몇몇이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일부다처는 과거 한때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하에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최근 뉴—유 타임스지의 주목할만한 평에 의하면 일부다처제를 행한 소수의 물론교도는 청교도의 규율 아래 과거 축복사들이 그러 했듯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굳은 신념하에 처자를 잘 거느렸던 것입니다. 연방법 중 이러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후 1890년 미 연방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한 합법성을 재 확인 하자 당시의 대판장이었던 윌포드 우드럽은 앞으로 일부다처를 금지한다는

성명서가 교회에 채택되어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다처제의 실시는 과거 이 제도를 승인하였던 권능과 같은 권능에 의하여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70년전의 일이었으며 오늘날 일부다처를 행하면 파문을 받게 됩니다.

###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물론교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판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공식적으로 용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경만이 물론교인이 믿는 경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교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고대 이스라엘에만 국한 되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몇몇 자녀와 일부 지방이나 과거 어느 한 때에만 국한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리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성경이 있듯이 고대 아메리카에는 물론경이 있었던 것



9.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모든 위대하고 중대한 것들을 계시 하실 것을 믿는다.

입니다. 물문경은 옛날 아메리카 인디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여러 예언자와 백성들에 관한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기록의 일부분으로 기원전 약 600년 부터 주후 421년 까지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에 기원을 둔 이스라엘 가문의 백성들이며 틀림없는 구약성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은 서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자기의 역사속에 수록하였습니다. 물문이란 그들 예언자의 최후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물문교란 물문이 편찬한 물문경이란 책의 제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다른 양들(요 10:16)인 서반구 사람들을 방문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물문의 선교사업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제도는 1830년초 이래 “여러나라

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요계 14:16) 회복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면서 부터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옛날에도 헌신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써왔던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선교사들은 아무런 금전적 보수도 없이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자비로(또는 가족이나 친지의 보조로) 생활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집 근처에서 선교사업을 하지만 다른 선교사들은 멀리 타국으로 건너가서 선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외국어를 배웁니다. 이들은 혼자만이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타인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진지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고 일터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합니다.

그들의 종교생활 가운데서 말일성도들은 실질적인 사람들로 특정지어



10. 우리는 이스라엘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 될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져 왔읍니다. 이 집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일성도와 종교는 한 주일 하루로 빠짐없이 즉 항상 영원과 더불어 서로 관계를 맺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단지 끝없는 영생의 일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생이란 각 개인에게 진실하고 현실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및 도덕적인 면은 여러 모로 불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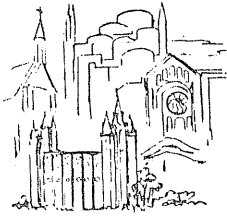
위에서 말한 실제적이라한 표현의 전형적인 특성은 “지혜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관한 법칙은 담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훨씬 전인 1833년에 있었던 일이며 “지혜의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술과 뜨거운 음료, 커피, 흥차 등도 해롭다고 충고해주고 있으며 온갖 해로운 것은 멀리(절제)함이 현명하다고 암시 해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상의 모든 것을 즐겨야 한다고 충고 합니다.

(교성 89)

이러한 실제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발적인 교회복지 계획이 되었고 이 계획은 정부나 다른 원조 기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거나 병약한 사람을 도우며 각자가 할수있는 한 힘껏 일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술, 연극, 운동경기—세계 제일의 농구연맹을 포함하여—몇 건전한 무용과 오락을 후원하며 권장합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913년에 소년단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 소년단의 계획을 받아들여 후 이것을 교회 자체가 갖고있는 소년들을 위한 계획과 밀접하게 통합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청 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또 이러한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과 교육을 행합니다. 아주 나이 어린 소년 소녀도 설교단에 올라가서 짚막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11. 우리는 자기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지 참가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봉사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직업적인 성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권은 자격있는 사담이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이며 몇몇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남자 회원이면 누구나 지 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다른 신권 직위에 보직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자기의 직업이나 일상 하던 일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각자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구원에 불가결한 것이며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임을 믿읍니다. 또 자유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다음과 같은 신앙 개조를 자주 인용 합니다. “우리는 각기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 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인간은 누구나 연구하고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의 초기 회원들은 진리를 찾아 양심껏 살 수 있는 자유를 구하기 위하여 가정과 농장과 세상의 온갖 재물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함께 주어진 법이 있으니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저지함을 믿는다”라는 신앙개조입니다. 말일 성도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전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조국을 지키며 각자의 군대 복무 기록을 관계 당국에 의하여 자주 인용 됩니다.

물론은 행복한 사람들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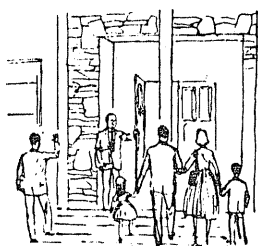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물문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함이었고 인간이 존재함은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니라” (나이 2:25) 말일성도는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믿기 때문에 평화와 생활 목적을 얻게되며 인간이 매우 진지하게 안고져 하는 “인간은 어디서 부터 왔나, 왜 왔나, 어디로 갈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일 성도는 자유와 또 그 자유가 자기 신앙속에 자리잡고 있는 큰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많은 것을 참아왔으니 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 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가지 않는다.



13.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 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 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가지 않는다.

# 선조를 위한 우리의 신앙

## 장 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우리의 애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기록한 조지 케논 형제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된후 선교사를 초빙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 선교사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침례 받기 위한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선교사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 불가결 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무겁게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알고 싶어 이러한 질문을 했던가를 모르는 이성적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는 지옥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천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

보다 좋습니다” 하고 침례 받기를 거절했다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많은 觀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지상에는 없을 것이며, 내 부모님들에 대하여 나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애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가르친 바와 같이 선조와 자녀를 연결하는 어떠한 관계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지구의 멸망을 번키가 어려우리라 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12: 8-18)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자손이라 조상이 홀로는 완전할수가 없고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가 대리로 침례와 그 외의 의식을 집행해 주므로써만 완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스스로 의식을 행할 수 없는 동안 조상을 위하여 대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자녀들은 조상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움은 물론 마음의 문을 여는 겸손을 갖게 되고, 신앙이 굳세지며, 선조들의 죄사함을 인기 위한 선행을 하게되며, 조상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복음에서 인은 지식으로 자



손들이 지상에서 대리의 구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자녀의 조상에 대한 사랑의 노력에 대하여 믿음과 기도로써 지상에 있는 자기 대변인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녀들은 조상을 위한 대리의 희생과 노력(대리 침례) 등으로 비록 한정된 분야에서 이기는 하나 자기 가족에서의 대리 구세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바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찌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낳도록 하는 의식을 지상에서 대리행하는 데 게으를 수 있을까요?

(58페이지에서 계속)

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숨 쉬어버리기 쉬웁으므로, 숨쉬는 자리를 강조한 것이다. 숨 쉬자리가 틀려지면 곡조 뿐 아니라 가사내용의 뜻이 죽어버리기 쉽다.

반주자에게

찬송을 부르기 전에 전주가 찬송가의 앞부분을 치기 때문에 지휘자와 사전 타협이 없을 때에는 전주가 어디서 끝나서 함께 부르게 되는지 몰라 지휘자나 회중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할수 있는대로 앞부분과 그 찬송의 끝부분을 연주한 다음 함께 부르도록 훈련이 되어 있게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족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특히 지방부에서 계보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방부 계보사업에 수고하시는 박재암 형제에게 깊은 사랑을 표하는 바이며, 먼거리를 서울까지 출근 하다시피 하는 그의 신앙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를 빌며, 또 선교부장님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계보사업의 진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큰 경제적 도움을 지방부 계보 위원회에 주선했어 주셔서 특히 감사하는 바입니다.

한국 계보 사업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筆者：地方部系譜委員會第二補佐)

사전에 철저히 연습해 두어서 잘못 치는 미스를 저질르지 않게 할것이다.

베이스 파트와 테너 파트의 음정이 많이 떨어져 있어 왼손으로 두 음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살펴 보면 둘째소절 “나” 셋째 소절 “향” 다섯째 소절 “한” 둘째단 첫소절 “믿는” 그리고 마지막음 “네” 등이다. 마지막음 “네”의 경우 테너음을 바른 손으로 함께 쳐 줄수도 있고 바른 손으로 쳐 주지 못할 경우 베이스 음을 한 옥타브 올려서 테네 베이스 음을 같이 쳐 주면 된다. 반주자용 찬송가에 미리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찬송가 소개》



### 7장 “하나님께 향한 유일한”

〈8월분 주일학교 연습용〉

작곡자 : 조지 케어리스

그는 1850년 영국에서 물론으로 개종하여 1864년에 유타주로 이민해 온 열성있는 물론으로서, 신전 사업에도 무한한 정력을 기울리신 분이다. 영국의 수도 런던 왕립 음악 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하였고, 런던 카벤트 정원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약했으며, 유타로 오기 전에 음악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유타에 와서는 후일에 테버나클 합창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60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으며, 우리의 심금을 울려 주는 아름다운 곡들이다.

작사자 : 엘리자 알 · 스노우

1842년 3월 17일 애인자 요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를 조직할 때 서기로 임명되었고, 후일에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신권자를 도우는데 크게 힘썼다. 스노우자매는 문학적 재질이 풍부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우리 찬송가중에는 “성도들이 큰 시험이 닥쳐와도” (29장) “하나님 지혜와 사랑” (69장) “진리 네발 비쳐

주니”(70장) “오 높은 영광 보좌”(80장) “구세주 돌아 가신” (89장) 등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많다.

이 찬송은 성찬 찬송으로 부르기에 알맞는 가사이다. 영이 원본으로는 6절까지 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니 무게있게 불러야겠다. 미스 프린트가 있어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2절 셋 째단 둘째 소절 둘째박자의 음에 “을”을 넣어 주시고 한 자리씩 가사를 옮겨 “구하—고—무—덤을” 로 고쳐주시면 감사 하겠다.

“하나—님께—향—한—유일한” 까지가 한 악절이 되는데 단숨에 끊지 않고 부를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중에 숨을 쉬어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에서 호흡하고 다음으로 계속하면 되겠다. 그다음 악절도 마찬가지로 “대속—의 피—”에서 숨쉬고 “믿는 신—앙으로”에서 숨쉬고 “우리—다—시—”에서 숨쉬고 “에—수—님—의”에서 숨쉬고 “상—애—돌—리—”에서 숨쉬면 되겠다. 숨 쉬는 자리가 악보상 (57페이지에 계속)

## 역원을 찾아서 (4)

민경옥 형제편

이달의 탐방은 성북지부장단 에서 봉사 하고 계신 민 경옥 형제님을 찾아 7월 9일 택으로 찾아 보였습니다.

기자 : 안녕 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더웁 습니다. 교회엘 다녀 오신지 얼마 안된 것 같으신데, 다니기 불편 하시지는 않습니까?

민형제 : 걸어서 약 15분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식구들이 함께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기자 : 교회 참석하시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민형제 : 먼저 토요일이 꼭 1주년이 됩니다. 딸과 집사람이 처음엔 동부 지부엘 나갔었습니다.

기자 : 집엔 몇분이 계십니까?

민형제 :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지만 성령 셋을 합하면 모두 일곱이 됩니다.

기자 : 그럼 아드님은 아직 칩레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민형제 :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와 공부중 입니다만, 식구들과 같이 생활하는 중에 자신이 교회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아직은 기다리

고 있습니다.

기자 : 자매님은 어떻게 교회엘 다니기 시작 하셨습니까?

미 자매 : 한 2년전에 친구의 권고로 감리교회엘 나가다가 이런 저런 일이 겹쳐지니까 나가게 되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위커 장로의 방문을 받았어요. 웬지 꺼려져서 피해 왔었는데 어떤 날에 아버지가 들어오다 보시고 꾸짖으시니 데리고 들어가셔서 열심히 들으시더군요.

기자 : 민형제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게 되셨는지요?

민형제 : 벌써 여러번 째의 방문이라는 것과, 젊은 두 사람이 한국 말에는 익숙치 못해도 알려줄려고 하는 그 진지한 태도엔 정말 감명 받은 바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시지 않았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서 저는 선교사 들의 방문을 싫어 한다고 해도 계속 방문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 교회 다니길 시작 하신 후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민형제 : 전의 친구들과과는 대체로 달

어지게 되었고, 대신 교회 회원들과 친숙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친구들에게 아직은 “내가 말일 정도요”라고 애길하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일 성도의 인상을 나로 해서 그르칠까 봐서입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엔 하루를 지내 놓고서 식구들이 모여 기도하는 즐거움도 애기를 해주어야겠습니다.

기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민형제: 대개의 회원이 젊은 분이어서 적응이 곤란하기는 했지만, 성북지부에는 제 동년배 되는 몇 분이 계시고, 또 종교적인 것이어서 매꿀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회원들에게도 동양적인 예절같은 것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자: 택에서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민형제: 생활이 불규칙적이어서 가끔씩 저녁을 집에서 보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부에선 어떻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민형제: 지부 제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자매님께서는?

이자매: 상호부조회 제 1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딸 자매님은?

민자매: 지부에서 반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 신조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민형제: 이제까지 밋다른 신조를 내세우고 살아오지는 않았으나, 집안 식구가 대체로 게으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매: 문본은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하다던데 우리도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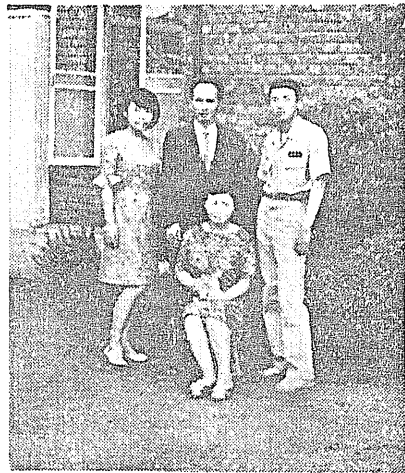
기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려움 같은 것은?

민자매: 생각이 안나시는 것으로 봐서 없으신가 봐요.

민형제: 한가지 있다면 나를 탐아 게으른 것이지요.

이자매: 저는 아들이 북적했던 학교에 안되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자: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을 대개 완전한 간섭과 적당한 충고와, 방임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까  
민형제 : 대체로 두 남매가 하고 싶  
다는 것을 해주는 방향으로 놓아 기르  
고 있었는데, 적당한 가정 교육 밑에  
서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기자 : 아드님의 특기는 ?

민형제 : 자랑 같읍니다만, 누나 처  
럼 뒷바라지를 해 주었으면 굉장 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운동, 문예等,  
허지만 아직은 자신이 결정짓지 못한  
것 같읍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  
고 봅니다.

기자 : 민자매님의 학교는 ?

민형제 : 서울 음대 피아노과 3학년  
입니다.

기자 : 언제부터 피아노를 쳤고, 발  
표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

민형제 : 국민학교 1학년 부터 쳤었  
고, 졸업전에 발표 할 수 있도록 충  
고하고 있습니다.

기자 : 외국에서는 전공과목에 비해  
서 교양과목이 우리나라 처럼 많지 않  
다고 하던데요.

이자매 : 글썄, 별로 많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기자 : 다른 것이 아닌 음악 공부를  
시키신 이유라도 있으신 지요.

이자매 : 제가 음악을 하고도 싶었  
읍니다만, 여자 다움을 키워주기에는  
음악이 좋을 것 같더군요.

기자 : 형제님의 억양이 서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형제 : 네, 황해도입니다. 열 세  
살에 서울로 올라왔는데도 이북 사람

들과 어울렸던 때문인지 말씨가 이북  
입니다.

기자 : 자매님께서서는 ?

이자매 : 함경도에서 낳았어요.

기자 : 민자매께서 부모님을 좀 소  
개하시겠습니까 ?

민자매 : 아버지는 연희전문 상과를  
나오시구요, 어머니는 동경에서 문과  
공부를 했어요. 그러구 두 분이 연애  
를 하셨대요.

기자 : 그렇습니까 ? 정말입니까 ?

민형제 : 중매반, 교제반 이었읍니  
다. 兩家の 父親께서 친분이 두텁던  
분이어서 우리는 어려서 부터 알고 지  
내 오다가 절차를 밟은 것이지요. 현  
제 저 사람이 많이 좋아 했지요.

자매 : 듣는 분 상상에 맡기 겠어요.

민형제 : 일경맨 택시라는게 없었지  
요. 그때 있었던 인력거 사건 이란게  
있어요.

(자매님이 그렇지 않다면서 극구다  
음으로 미루자고 하신다)

기자 : 화초 좋아 하십니까 ?

민형제 : 네, 공을 드려서 커가는 것  
을 보면 무척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허지만, 겨울에 관리 부족으  
로 손실이 많았고, 그럴때 마다 안타  
까움을 느껴야 하는 것은 큰 고통 이  
더군요.

기자 : 제일 오래된 것이 몇년 띄었  
읍니까 ?

민형제 : 이사 두번에 많이 없어지고  
용설란과, 사보텐이 11년된 것입니다.

(48 페이지에 계속)

# 下月谷洞 八八番地를 찾아

김 박

동 창

두 옥

형 자  
제 매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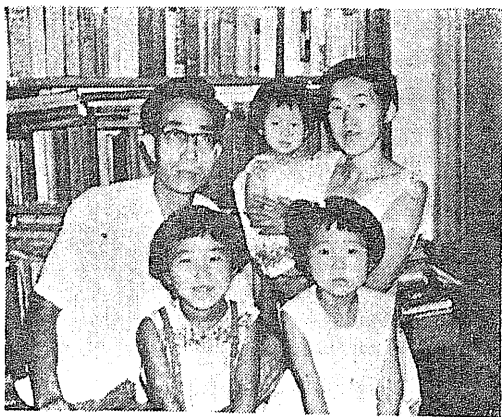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공부 한지 거의 일년이 가까운 7월 1일에야 침례를 받았다.

그것은 진실로 길고 긴 여정이었다. 먼저 오늘이 있기 까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리를 가르치 주신, 지금 영등포지역에 계시는 벨순장로님, 삼청지부의 이반즈장로님, 대전에 계시신 칸순장로님, 멀리 아라스카로 계시신 피터순장로님 그리고 천낙서장로님과, 스나아장로님 또한 팔마 선교부장님의 두터운 격려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동시에 물론 가족을 이루기를 바라고 끊임 없이 기도하여 준 육인이와 수인이와 그 이미에게 이제는 조식으로 함께 기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진다.

사람의 복음(福音)이 얼마인지 통감할 수 없으나, 가령 70세를 기준으로 한다 손 치드라도, 나는 이미 인생의 반을 넘긴 셈이다. 인생을 살면서 부터 느껴진 회의와 그 반을 넘기면서 부터 차츰 덮치 오는 초조감은 막을 길이 없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고 괴로워 할 일들이었지만, 나에게도 너무나 인간적인 여러 문제가 회의와 번뇌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릴적 부터 절에도 가서 목탁소리에 귀도 기울려 보았고, 교회에도 가서 이름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경청하였었지만, 시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때로는 심산 유곡을 혼자 해매

이모기도 하고 이름 있는 저서도 탐독하였으나 내 스스로의 문제해결의 안식처를 구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나는 드디어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목숨을 다하기 전에 세상에 무엇인가 보탬을 할 수 있는 값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문의 잠 뜻을 공부 하면서 부터 잉원



으로 이이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여기에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긴 시간을두고 공부하고 공부하였다. 내세(來世)에 대한 인간의 회구는 천당과 지옥에의 갈림길 보다는 “혜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이제 내뫼은 그리고 내 가족은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서 새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영혼의 안식처를 얻은 기쁨에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 (II)

1965년 3월에 나는 현재 성북지구회원이시며 지방부 상호 부조회 회장이신 박우천 자매님과 같이 삼청지부를 방문하고 처음 물론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어릴 때 부터 감리교회에 다녔었다. 마침 교회의 분위기와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많

았든 때였다. 그러나 나는 비록 교회가 썩고 부패되었어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마음의 갈등에서 헤매이든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요셉 스미스께서 간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으로서 움직이는 우리 교회는 진정 내가 찾고 바라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교회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미국적인 냄새가 우리 체질에는 맞지 않았으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人種과 國境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내가 우리 교회에 나가려고 결정했을때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크게 노하시면서 나를 만류 했다. 그는 심지어 나의 남편까지 붙들고 나를 물론교회에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빌리면 물론이란 이단이고, 일부다쳐주의고, 펜스만 추는 교회라고 비난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



을 믿지않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그러나 그 목사님은 편사적으로 나를 붙들고 만류했다. 나는 그 목사님과 싸우다 싫어 하면서 윌리엄스 장로님과 같이 공부를 시작했다. 말일에 회복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초대 교회와 꼭 같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직접 느낀수 있었다.

드디어 1965년 5월에 박우철차메님과 같이 삼척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것은 一生의 방향이 바뀌어진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는 침례를 받은 후 집안일을 하면서 행복한 회원 노릇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마음한 구석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다. 우리 집에도 신권을 가진 가정이 있게 해달라고……

오래동안 기도하던 중 애기 아빠는 1966년 가을에 벨슨장로님과 같이 공

부할 것을 약속했다. 人間的인 面에서 너무나 고집이 센 性格의 所有者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不可能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에 일어났든 방향과 주저와, 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간 벨슨장로님과 칸슨장로님과 스나아 장로님과 천낙서 장로님의 熱意있는 신앙의 증거로 그는 지난 7월 1일에 동부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나는 나의 침례 때 보다도 빛 굼절이나 더 기쁜 감사를 느끼었다.

이제는 두려운 것이없다. 神權의 能力으로 이루어 지는 우리 家庭이 앞으로 축복된 속에서 이 땅에서나 또 來世에서나 永遠한 幸福을 누릴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나의 새 子女들이 神權이 있는 家庭에서 자라날 것을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 했읍니다.

## 포스타 현상 당선작 발표

1967년 5월호에 발표되었던 포스타 현상 모집에 출품된 다수의 작품 중에서 예선에 합격된 3점의 작품을 놓고 최종 심사를 했던 바 다음과 같이 결정을 보았읍니다.

당선작 : 신촌 지역 우 양자 자매  
가 작 : 부산동구 지부 황 부용 형제  
부산동구 지부 김 성희 자매

시 상 :

당선작 : 성도의 빛 1년분과 상금 천원

가 작 : 성도의 빛 6개월분

이상의 상품을 소속지부로 각각 우송하겠음.

(1967년 6월 1일 성도의 빛 편집자 11)

일 반 용

|                      |        |
|----------------------|--------|
| 말일성도 용어집.....        | 10원    |
| 물몬이란 .....           | 100원   |
| 물몬경(가족표지).....       | 1,200원 |
| 물몬경 .....            | 150원   |
| 우정 프로그램.....         | 30원    |
|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 | 50원    |
| 어린이 찬송가.....         | 100원   |
| 찬송가 .....            | 50원    |

圖書案内

주 일 학 교 용

|                         |      |
|-------------------------|------|
| 그리스도의 생애.....           | 100원 |
| 기이한 업적(상권).....         | 100원 |
| 기이한 업적(하권).....         | 100원 |
| 말일성도란? .....            | 100원 |
| 복음의 멧세지(하권).....        | 10원  |
| 복음의 실천.....             | 100원 |
|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 100원 |
|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 | 150원 |
| 성전중의 지도자.....           | 150원 |
| 우리들의 표준 성전(상과 하).....   | 10원  |
| 주님의 멧세이지.....           | 100원 |
| 주님의 멧세이지(교사 보조 교제)..... | 100원 |
| 회복된 교회의 역사 .....        | 100원 |
|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 150원 |

상 향 회 용

|                       |      |
|-----------------------|------|
|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강화..... | 20원  |
| 민속 무용 교본 .....        | 10원  |
|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     | 100원 |
| 상향회 역원 지도서 .....      | 50원  |
|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     | 50원  |
|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   | 50원  |
| 장미반 공과.....           | 150원 |
| 지도 원리.....            | 50원  |

신 권 회 용

|                 |      |
|-----------------|------|
| 아론신권회 지침서.....  | 20원  |
| 인간과 하나님.....    | 100원 |
| 집사 고문 지도서 ..... | 150원 |
| 회복된 성교회.....    | 100원 |

유년 주일학교 용

|                     |      |
|---------------------|------|
| 우리의 종교생활(상권).....   | 100원 |
| 우리의 종교생활(하권).....   | 100원 |
| 주안에서 자라남.....       | 150원 |
| 복음안게서 자라는 어린이 ..... | 150원 |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             |                                   |
|-------------|-----------------------------------|
| 宣 敎 本 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br>⑦ 3995       |
| 東 部 支 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br>② 1005  |
| 三 清 支 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창동 5번지<br>⑦ 3596       |
| 四 部 支 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br>⑦ 1208 |
| 城 北 支 部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원곡동 88의 13<br>② 0744   |
| 新 村 地 域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
| 永 登 浦 地 域   | 서울특별시 노량진동 54의 15                 |
| 仁 川 地 域     |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대화제과 2층              |
| 大 田 地 域     | 대전시 대흥동 440의 1<br>② 6273          |
| 大 邱 中 央 支 部 |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br>② 6659         |
| 釜 山 支 部     |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br>④ 7071        |
| 東 區 支 部     |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
| 光 州 地 域     | 광주시 남동 서울 건축재료상 2층                |

성도의 벗

1967年 7月 30日

通卷 第 25 號

發 行 人 襄 一 文

編 輯 人 洪 武 光

發 行 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敎本部

印 刷 所 寶 晉 齋 印 刷 所